

고려후기 군제(軍制)의 변화상 연구

- 만호(萬戶) 및 외관(外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강 한 *

1. 머리말
2. 10-14세기의 여러 군직(軍職)들
 - 1) 고려초-14세기 초
 - 2) 14세기 중엽 이후
3. 14세기 후반 진행된 변화의 성격
 - 1) 군직과 만호의 접목, 군직과 외관직의 결합
 - 2) 군직 상호간 통합 및 군직의 외정 간여폭 확대
4. 맺음말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려는 왕조 후반 많은 전란을 겪었다. 13세기 전반에는 몽골의 침공이 있었고, 후반에는 원의 강요로 인한 일본정벌이 있었으며 세기말에는 카다안이 침구했다. 14세기 중엽에는 왜구의 준동이 시작됐고, 그에 흥건적 침공까지 겹치면서 왕조 방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자연히 고려의 군제 또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되었다.

당시 관찰되는 변화 중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원 군제로서의) 만호[부] 제의 도입, 그리고 고려말 각종 군직(軍職)들의 복잡다단한 운영상이다. 만호부에 대해서는 이미 적지 않은 검토가 시도되었고,¹⁾ 고려 군제(軍制)의 14세기 동

*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학부 한국사학전공 부교수.

태에 대해서도 여러 탁월한 연구들이 발표돼 왔다.²⁾ 다만 두 정황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는 그리 많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두 정황이 서로 연동돼 있었을 가능성이 차목, 군직의 외관적 성격이 강화되는 한편으로³⁾ 그 군직들이 서로 통합돼 가던 추세에 [외래제도이자 이후 고려제도로도 변신했던] 만호[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바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⁴⁾

2. 10-14세기의 여러 군직(軍職)들

1) 고려초-14세기 초

(1) 고려의 전통적 군직들⁵⁾

가) 12세기까지의 상황

고려말 활발하게 등장하는 군직들의 대부분은 13세기 전까지 그리 자주 임명

1) 최근성, 1988 「고려 萬戶府制에 관한 연구」『관동사학』3; 변동명, 1989 「고려 충렬왕대의 萬戶」『역사학보』121; 이강한, 2016 「고려후기 만호부(萬戶府)의 지역단위적 성격」『역사와현실』100. 아울러 권영국, 윤훈표, 오종록 또한 원제국의 고려내 만호부 설치 및 고려

말 만호부들의 동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언급했다.

2) 고려말 군제운영의 변화에 대해 권영국은 2군 6위제의 변동, 별초의 설치, 겹설제와 성중

애마, 개병제 지향의 군역제 개편 등에 주목했고(1995 『고려후기 군제사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훈표는 군인전 문제와 군역제 동요, 국왕대별 군제개혁 등에 주목했으며(2000 『여말선초 군제개혁연구』, 혜안, 1·2장), 오종록은 도순문사와 익군제, 원수제와 지역별 방위양상 등에 주목하였다(2014 『여말선초 지방군제연구』, 국학자료원, 1부).

3) 본고에서 사용한 ‘군직(軍職)’이라는 용어는, ‘군지휘관’직과 ‘군행정관’직 모두를 포함하는 일종의 광의의 개념이다. 『고려사』에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 용례여서, 필자 나름의 개념으로 설정해 사용했음에 대해서는 독자 제헌의 양해를 구한다. 한편 유사한 용어로 ‘군관(軍官)’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고려사』에 등장하는 ‘군관’ 용례들이 대체로 군통솔자, 군지휘관을 지칭함(“출정군관”, “방어군관”, “수비군관” 등)을 감안할 때, ‘군행정관’의 의미까지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돼, 본고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4) 이 시기 고려군제 연구는 대체로 ①군인전문제와 군역제(軍役制)의 동향, ②국왕의 병권(兵權)정책, ③각종 지휘관들의 지역방어 양상, ④군종(軍種: 선군·익군·만호부 등) 문제 등을 짚어 왔다. 본고에서는 ⑤기존 군제와 외래 군제(‘만호’)의 ‘관계’에 주목해 보았다.

되지 않았다. 원수는 병력을 통솔하는 군령관으로서 가끔 등장하지만, 관련 사례는 강감찬·윤관·오연총·김부식⁶⁾ 정도로서 그 출현빈도가 대단히 낮다. 지휘사 역시 12세기 말까지 『高麗史』 세가 등에 두어 번 등장할 따름이다.⁷⁾ 순문사는 그나마 12세기 말까지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과 달리 병마사는 고려초 아래 활발하게 임명됐다. 5도에서 안찰사들이 담당하던 역할을 동·서북면에서 담당했던 이들은,⁸⁾ 사실상 양계지역의 ‘외관’으

5) 고려시대의 역사에 등장하는 군직들은 그 종류가 자못 다양하지만, 본고에서는 등장 빈도가 높은 원수·지휘사·순문사·병마사로 검토를 한정했음을 밝혀둔다. 이들에 대한 필자의 기술과 관련하여, 그 수행한 역할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그 범위의 ‘상호중첩’ 정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여러 심사자들의 지적 말씀이 있었다. ‘동일 공간에 복수 파견되거나 일정부분 겹치는 공간에 동시 파견된 그들이 각기 어떤 역할을 맡았고 서로의 업무는 어떻게 분담·조율했을 지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들의 등장 기사들은 대체로 소략하여, 각 역할의 범위와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여의치 않다. 또 필자의 경우, 고려후기의 상황이 ‘군직간 통합, 군-외직간 통합’의 양상으로 전개됐음에 착안, 그런 현상(통상 ‘혼란’으로 지칭하기도 하는 현상)이 군직과 군직 간 구분, 군직과 외직 간 구분을 ‘허무는’ 과정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고려 전·중기 군정과 외정 간에 존재했던 계선이 고려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약화’돼 갔을 가능성에 주목(3장)한 것이어서, 군직간 역할 구분 또는 분리에 대한 검토가 논의전개상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그를 논하기 위해 각 군직의 치폐 과정을 여기서 미리 정리한 것인데(2장), 전체 무직(武職) 운영체계(구조)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지 않아 서술이 다소 평면적으로 흘렀다는 지적 역시 겸허히 수용한다.

6)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 9年(1018) 12月 戊戌 “姜邯贊爲上元帥”; 권64, 志18 禮 軍禮 師還儀 睿宗 2年(1107) 10月 壬寅 “命尹瓘爲元帥, 吳延寵副之”; 권16, 世家16 仁宗 13年(1135) 1月 辛亥 “金富軾爲元帥.”

7) 『高麗史節要』 권4. 靖宗 12年(1046) 11月 “楊規副指揮”; 卷12 明宗 4年(1174) 10月 “東北路都指揮使”;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2年(1235) 9月 辛未 “命上將軍金利生爲東南道指揮使.” 다만 지역단위(서북면·동북로·동남도)로 임명됐음이 주목되며, 후술하도록 한다. 한편 『고려사』 식화지는 ‘지휘(사)’가 목종 원년(998) 12월 〈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14과(科) 및 15과]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데(권78, 志32 食貨1 田制 田柴科), 함께 열거된 직종들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지휘사가 통상적 의미의 군 지휘관과 동일한 존재였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8) 『高麗史』 卷75, 志29 選舉 銓注 選用監司 明宗 18年(1188) 3月 “其令兩界兵馬使, 五道按察使, 巡察吏理期於實, 各官員吏廉貪勤怠, 精究巡問, 小有割民受贈, 憑公自利, 遍問驗實, 以罪貶奏, 其有清白守節, 興利除害, 獄訟平決者, 以功褒奏.” 권영국도 병마사들이 양계지역의 일반행정 및 군정을 총괄했을 것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113면).

로 정기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12세기 후반까지 동·서북면에 병마사·부사·지사들이 주기적으로 파견됐고, 전시에는 중군·행영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무신집권초에는 ‘남적’을 겨냥한 다양한 병마사들이 등장했고 좌·우도 병마사도 등장하였다.⁹⁾

그러다가 대몽항쟁기에 접어들면 상황이 다소 바뀐다.

나) 13세기 전반¹⁰⁾

원수로는 여전히 정숙첨과 조충 정도가 확인될 따름이다.¹¹⁾ 이들은 1210년대 말 몽골과의 합동작전에서만 등장했다.

그에 비해 지휘사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1230년대 중·후반, ‘지역단위를 배경으로’ 파견됐음이 눈에 띈다. 1236년의 도별(道別) 지휘사 임명이 좋은 사례다.¹²⁾ 게다가 이 조치에 앞서 충청주도 안찰사가 동남도 부지휘사를 겸임했음이 주목된다.¹³⁾ ‘민정관’에 해당하는 [준외관] 안찰사가 ‘군직’인 지휘사를 겸하게 된 것으로, 뒤집어 보면 한 명의 관료가 ‘군직’인 지휘사직과 ‘민정관’ 안찰사직을 동시에 수행했던 셈이다. 외관이 군직의 고유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발생한 가운데, 지휘사가 군정 외 업무(민정)에 간여할 통로도 제한적으로나마 부여된 상황이라 추정된다.¹⁴⁾

9) 『高麗史』 권18, 世家18 毅宗 9年(1155) 6月 乙未: 권19, 世家19 明宗 2年(1172) 1月 庚辰: 明宗 7年(1177) 2月 己亥: 戊午(“남로병마사”, “남적집착병마사” 등).

10) 고려 ‘중기’와 ‘후기’ 등은 상당히 긴 기간을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본고에서는 좀 더 세밀한 구분을 위해 편의상 ‘50년’을 한 분절 삼아 검토를 진행했다. 물론 이런 구분방식을 사용할 경우 12세기말-13세기초, 13세기중엽, 13세기말-14세기초 등 세기 전환점의 추세에 대한 분석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바, 그런 문제들은 분석과정에서 최소화하고자 최대한 노력했다. 아울러 시대별 세태 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고려말기’ 등 당시 세태에 대한 선형적 판단을 가능케 할 소지가 있는 구분은 피하고자 또한 밝혀 둔다.

11) 『高麗史』 권64, 志18 禮 軍禮 師還儀 高宗 3年(1216) 10月 “命知政事鄭叔瞻, 爲行營中軍元帥, 樞密院副使趙, 爲副.”

12)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3年(1236) 10月 甲午 “全羅道指揮使上將軍田甫龜報 (후략)”

13) 『高麗史』 권23, 世家23 高宗 22年(1235) 9月 辛未 “(전략) 爲東南道指揮使, 忠淸州道按察使庾碩副之.”

아울러 이 시기 관찰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순문사’의 등장이다. 공교롭게도 원수가 등장했던 1210년대, 지휘사가 등장한 1230년대를 이어 『고려사』 세가에는] 1240-5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¹⁵⁾ 이 시기 도순문사들 역시 ‘도(道) 단위’로 운영됐다.¹⁶⁾ 아울러 ‘순문안찰사’라는 용례가 보여주듯이¹⁷⁾ (지휘사의 경우처럼) 안찰사들과도 관련을 맺었음이 흥미롭다.¹⁸⁾

한편 병마사의 경우, 거란유종 격퇴 및 대몽항쟁 등에 적극 나서는 등 13세기 전반에도 여전히 자주 등장했다. ‘5군 병마사’ 체제가 출현하기도 했으며,¹⁹⁾ 동남도·교주도의 사례들은²⁰⁾ 동서북면 외의 지역에서 (임시)병마사들이 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양상들 중 일부는 13세기 후반으로 연결되지만, 새로운 양상 또한 출현한다.

14) 지방관이 주현군(보승·정용군)을 지휘하는 상황이 고려전기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이기백, 1968 『고려병제사연구』, 일조각, 213면), 이 상황은 일반적인 경우라기보다 돌연한 필요가 발생해 지사가 군교를 지휘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려후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점차 제도화한 것이 아닌가 한다.

15) 『고려사』 세가 이외의 사례로는 1227년 김희제의 사례가 유일하다(오종록, 앞의 책, 22면).

16)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年(1253) 7月 甲申 “三道巡問使 (후략)”: 41年(1254) 3月 乙亥 “全羅州道巡問使 (후략)”: 43年(1256) 4月 庚寅 “忠州道巡問使 (후략)”

17) 『高麗史節要』 권16, 高宗 34年(1247) 6月 “(전략) 令巡問按察使, 囚無賴僧徒以慰民心 (후략)”

18) 통상 순문사의 경우, ‘군령(軍令)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원수·지휘사와는 달리 이를바 ‘군정(軍政)’을 담당했던 존재로 간주된다. 이러한 ‘군정’은 대체로 ‘군액의 관리’ 및 ‘군 운용재원 확보’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으며, 그런 업무 자체가 ‘외관’들의 기본업무와 맞닿아 있었을 가능성도 높다. 심사자 중 한분께서는 고려전기 읍사 조직의 ‘사병(司兵)’ 직임을 그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고려전기에 존재한 이러한 가능성 역시 (필자가 본고에서 제기한) 고려후기 군직의 외관적 성격 강화 현상을 가능케 한 토대 중 하나라 생각된다.

19) 『高麗史』 권22, 世家22 高宗 3年(1216) 8月 己巳 “中軍兵馬使 (중략) 右軍兵馬使 (중략) 後軍兵馬使 (후략)”: 4年(1217) 4月 戊午 “(전략) 前軍兵馬使 (중략) 左軍兵馬使 (후략)”

20) 『高麗史』 권81, 志35 兵1 制兵 高宗 4年(1217) 5月 “東南道加發兵馬使 (후략)": 권22, 世家22 高宗 4年(1217) 8月 壬子 “交州防護兵馬使 (후략)"

다) 13세기 후반

원수의 경우 13세기 후반 몽골의 간섭이 시작된 후에도 여전히 부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원수(또는 도원수·부원수)’로 임명된 고려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²¹⁾ 고려정부가 아닌 몽골황제가 임명한 직함들이었다.

반면 지휘사의 경우 일본정벌 및 카다안 침공 와중에 활발하게 운용됐다 (1275-1280; 1289-1294). 13세기 전반 시작된 ‘제도(諸道) 지휘사 파견’이 더욱 확대되었고,²²⁾ 1274년 아래 ‘도(都) 지휘사’라는 용례가 대두해²³⁾ 그 권한이 강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도지휘사’들 역시 민정의 영역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1275년 서해도 도지휘사의 경우 ‘세금 포흡’ 등 민정의 영역(예산·재정)을 거론했고, 그를 방치한 안찰사와 수령 등의 ‘외관’들을 비난했다. 1280년대에는 도지휘사들이 계첩사 임무도 겸했다.²⁴⁾

급기야 1290년대에는 도지휘사들이 ‘외관직’을 겸하게 된다. 1290년 7월 추밀정인경이 서북면 도지휘사 직과 서경 유수 직을 겸하였고, 1292년 1월 서경유수 엄수안이 서북면 지휘사를 겸했으며,²⁵⁾ 충선왕 즉위년 관제개편(1298년 5월)에는 최충소와 원경 등이 ‘과의군 도지휘사 겸 중경유수’에 임명되기도 했던 것이다.²⁶⁾

순문사의 경우 1260-70년대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1284년경 재등장할 당시 드

21) 『高麗史』 권29,世家29 忠烈王 6年(1280) 12月 辛卯 “以金方慶爲中奉大夫管領高麗軍都元帥”; 권33,世家33 忠宣王 復位元年(1309) 3月 戊申 “帝以叅理金深爲高麗都元帥; 瑞爲副元帥.”

22) 『高麗史』 권27,世家27 元宗 13年(1272) 3月 癸酉 “分遣指揮使于諸道.”

23) 『高麗史』 권27,世家27 元宗 15年(1274) 1月 “(전략) 全州道都指揮使 (중략) 羅州道指揮使”; 권28,世家28 忠烈王 元年(1275) 5月 “西海道都指揮使 (후략)”; 10月 “慶尙道都指揮使 (후략)”

24) 『高麗史』 권29,世家29 忠烈王 6年(1280) 7月 乙丑 “西海道計點使禹濬冲爲都指揮使”; 권30,世家30 忠烈王 11年(1285) 10月 乙卯 “以金周鼎爲忠清全羅慶尙道計點都指揮使, 分遣計點使及別監于諸道”; 12月 癸卯 “以同知密直司事宋玢爲慶尙道造船都指揮使, 又遣使諸道督造船侍軍糧.”

25) 『高麗史』 권30,世家30 忠烈王 16年(1290) 7月 庚申 “以副知密直司事鄭仁卿爲西北面都指揮使留守西京”; 18年(1292) 1月 癸卯, “以西京留守嚴守安兼西北面指揮使 (후략)”

26) 『高麗史』 권33,世家33 忠宣王 卽位年(1298) 5月 “崔沖紹同知資政院事行中京留守開元府尹果毅軍都指揮使; 元卿爲中京留守果毅軍都指揮使.”

디어 ‘도(都)순문사’로 나타나기 시작한다.²⁷⁾ 1289년에는 군량운송 미비로 파면된 지휘사들 대신 도순문사들이 경상·전라도에 파견됐고,²⁸⁾ 1302년에는 서북면에도 파견됐다.²⁹⁾ 물론 염승익(1284), 박지량(1289), 이준비(1275-1281 사이)의 사례에서³⁰⁾ 보이듯이, 한 사람이 ‘복수’ 또는 심지어 ‘3도’의 도순문사를 겸하고 있다. 지역별 군사지휘를 맡았던 지휘사와는 달리, 순문사의 경우 도별 군사행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시기의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병마사들의 기능이 위축된다는 점이다. 강화 이후 1268년까지 거의 임명되지 않다가, 1차 일본정벌 때 다시 활발하게 등장한다.³¹⁾ 그러나 1275년 이후 긴 공백이 시작되며, 1288년, 1294년, 1301년 정도에나 발견될 따름이다. 고려 전·중기의 경우 전시(戰時)는 물론 평상시에도 자주 임명됐던 병마사들이 카다안군의 고려 침공이 있었던 1280년대 말-1290년대 초 별달리 임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 의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의 설치로 고려가 동서북면을 상설하면서 발생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렇듯 13세기 후반, 고려 원수들은 임명이 없었던 반면 지휘사가 주요 군사 국면에 빈번하게 등장했고, 순문사는 광역 단위 도순문사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반면 병마사는 1차 일본정벌 이후 쇠퇴하였다.

그러다가 14세기 전반 돌연 일종의 ‘공백기’가 도래한다. 도지휘사의 경우 1300년 12월 서북면에 송화가 임명된 후³²⁾ 1350년 3월 경상전라도 도지휘사가 새로 임명될 때까지 임명된 바가 없다. 순문사 역시 1302년 10월 서북면 정윤의

27)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10年(1284) 2月 戊子 “以副知密直司事廉承益爲慶尙全羅忠清道都巡問使.”

28)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5年(1289) 3月 辛卯 “(전략) 忠清道指揮使大將軍林庇, 全羅道指揮使左司議大夫崔謙, 以輸軍糧後期, 皆削職. 乃以知密直司事羅裕爲忠清道都巡問使, 判三司事朴之亮爲慶尙全羅道都巡問使, 以督軍糧 (후략)”

29)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8年(1302) 10月 乙亥 “以密直提學鄭允宜爲西北面都巡問使.”

30)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10年(1284) 2月 戊子 “(전략) 廉承益爲慶尙全羅忠清道都巡問使”; 권30, 世家30 忠烈王 15年(1289) 3月 辛卯 “(전략) 朴之亮爲慶尙全羅道都巡問使以督軍糧”; 『高麗史節要』 권21, 忠烈王 13年(1287) 1月 “(전략) 李尊庇卒 (중략) 東征之役爲三道都巡問使.”

31)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4年(1273) 2月 癸卯 “中軍行營兵馬元帥金方慶 (후략)”

32) 『高麗史』 권31, 世家31 忠烈王 26年(1300) 12月 丙申 “以宋和爲西北面都指揮使.”

의 파견을 끝으로³³⁾ 1343년 9월 강릉교주도 도순문사 윤환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고려사』 세가에서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원수와 병마사의 임명도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14세기에 접어들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원수와 지휘사의 경우, 신흥 원 만호부들이 그 임무를 승계·대체한 것으로 보인다.³⁴⁾ 반면 순문사의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다. 합포지역 만호로 출진하는 자들이 겸하곤 했던 ‘순무사’의 존재나,³⁵⁾ 14세기 전반 ‘합포영을 안집하거나 합포를 다스리며 경상전라도 순문사를 겸한’ 김승용·김륜의 사례 등에서 보이듯이,³⁶⁾ 일찌감치 만호부와 ‘공조체제’를 구축한 정황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³⁷⁾ 이런 경험은 이

33)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 28年(1302) 10月 乙亥 “以密直提學鄭允宜爲西北面都巡問使.”

34) 원제국에서도 ‘종래의 원수부’들이 ‘신생 만호부’들에 흡수됐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원제국은 1284년 몽고도원수부를 몽고도만호부로 개편했고, 1285년에는 강회강서(江淮·江西) 원수초토사(元帥招討司)를 ‘상중하(上中下) 3만호부’ 체제로 재편하였다[『元史』 권13, 本紀13 世祖 至元21年(1284) 6月 庚申; 至元22年(1285) 2月 乙巳]. 1289년과 1291년에는 도원수가 관군만호들 내에서 임명됐으며[권15, 本紀15 世祖 至元26年(1289) 12月 甲午; 권16, 本紀16 世祖 至元28年(1291) 9月 壬子], 그밖에도 도원수부들이 만호부로 바뀐 정황들이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권86, 志36 百官2 회회포수군장상만호부: 산동하북 몽고군대도독부). 아울러 ‘지휘사’의 경우 또한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진변만호부들이 고려 각처에 설치된 이후였을 1296년, “도평의사사와 도지휘사간 직통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한 건의가 (진변만호부가 설치되지 않은) ‘서북면’에서(만) 나왔던 점이나 [『高麗史節要』 권21, 忠烈王 22年(1296) “一, 西北界人性暴悍, 不可以內旨騷擾, 自今宜傳旨都評議司, 都評議司下牒都指揮使, 亦可以辦事而安人心 (후략)”), 1300년 탐라에 군민 ‘도지휘사’사를 설치해 달라는 고려왕의 요청에 (비록 총관부가 설치됐다가 폐지되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대신 ‘만호부’가 설치됐음은, 원 만호부 제도가 고려 도지휘사의 역할을 흡수할 정도의 위상 또는 기능적 유사성을 지닌 존재로 당시 간주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35) 『稼亭集』 권9, 序 “送洪密直出鎮合浦序, 國家以慶尙全羅既爲邊防而又財賦所出, 一國之府. 故出鎮于此, 皆帶巡撫使, 不必受朝命, 選其能也. 其廉按二道, 牧守諸州者皆屬而聽命, 荷非才兼文武, 位望服衆, 璇克當之 (후략)” 고병익은 이 ‘순무사’가 순문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오종록, 앞의 책, 34면).

36) “鎮合浦營兼慶尙全羅道巡問使”(김승용묘지명, 1329년 사망): “以慶尙全羅都巡問使鎮合浦”(김륜묘지명, 1348년 사망). 한편 본고에서 인용한 묘지명 자료들은 모두 『고려묘지 명집성』(김용선 편, 200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참조했음을 밝혀 둔다.

37) 기왕의 연구에서도 [순무사는 순문사와 동일한 존재였다는 전제 및 ‘경상·전라’가 ‘합포 만호부·전라만호부’를 의미한다는 전제 아래] ‘진변만호부의 만호가 도순문사직을 겸한’

후 순문사들의 역내[道] 군정 총괄에 중요한 자산이 됐을 듯한데, 후술하도록 한다.

(2) 13세기 후반 원 만호제(萬戶制)의 도입³⁸⁾

가) 만호 직함의 전래

병력관리 및 전투단위로서의 원제국 만호[부] 제도는 13세기 중반 몽골 만호들이 고려에 진주하면서 처음 전래되었다.³⁹⁾ 이들은 1250년대 말 고려에서 축성, 선박건조 및 둔전경영을 전개했고,⁴⁰⁾ 사람들을 납치·방면하면서⁴¹⁾ 민간에 악명을 떨친 것으로 확인된다.⁴²⁾

고려인의 만호직 수령 첫 사례로는 박희실과 조문주를 들 수 있다(1259).⁴³⁾

몽골조정은 이 하사의 이유를 ‘출륙(出陸: 개경환도)을 거부한 죄의(崔眞)를 주살한 일’로 들고 있어,⁴⁴⁾ 이 하사는 고려의 출륙을 독촉하려는 ‘회유용’이었던 것

것이라 본 바 있다(오종록, 앞의 책, 34면). 한편 그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2 경상도 창원도호부 고직조 기록에 ‘경상도 도순문사가 합포만호부 자리를 군영으로 사용했다’는 언급이 있음에도 주목했는데(앞의 책, 89면), 이 역시 만호부 만호와 도순문사 직함 간의 상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이라 할 것이다.

38) 만호부는 ‘공간단위’이고 만호는 ‘군직’이므로 분리해서 논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게다가 만호부 설치를 동반하지 않은 만호 임명도 더러 있어 분리논의가 필수적일 때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겸토대상은 ①본래 ‘군사단위’이면서도 ‘지역단위’로도 거듭난 만호부의 특성 ②(지역별로 임명된) 만호들의 ‘고려외관 겸직’ ③‘고려 군직의 외관적 성격 강화 및 ④그런 고려 전통 군직들 서로간의 결합’이어서, 궁극적으로 단위로서의 만호부는 물론 만호를 포함한 여러 군직들이 지방관들과 맺었던 관계를 다루는 바, 만호부 및 만호를 함께 다루게 된 것임을 밝힌다.

39)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0年(1253) 11月 戊寅: 46年(1259) 1月 丁卯 “王萬戶 (후략)”

40) 『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6年(1259) 2月 庚子.

41)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 元年(1260) 3月 癸巳: 9月 甲午.

42) 한편 드물게 몽골천호나 총관이 고려에 내투하기도 했고, 쌍성등지의 조휘·탁청 등은 몽골로부터 총관, 천호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高麗史』 권24, 世家24 高宗 43年(1256) 10月 甲申: 45年(1258) 11月 丙辰: 12月].

43) 『高麗史節要』 권17, 高宗 46年(1259) 8月 “朴希實趙文柱偕蒙使尸羅間等來. 帝賜希實文柱金符爲萬戶.”

44)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 卽位年(1259) 8月 辛巳 “(전략) 朴尙書趙尙書二人令管汝之所委萬戶 (후략)”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산발적 하사들을 통해 고려인들의 만호[부] 제도에 대한 이해도 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장용이 1264년 원 승상에게 “상국 만호의 폐자두 역시 그 수가 족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거나 1268년 ‘현재의 (고려) 백호·천호는 허명(虛名)에 불과하다’고 한 것이 그를 잘 보여준다.⁴⁵⁾

1270년대에는 고려인 천호·백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둔전 혁파를 요청하기 위해 “장군 인공수와 보성 천호”가 원에 파견된 사실(1271)은 당시 고려 지방 사회에 이미 천호가 배치됐음을 보여준다.⁴⁶⁾ 또 충렬왕대초 중국 명주에 정착하고 이후 원 천호직을 수령했던 고려인들의 경우, 그들의 중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만호류 직함 수령도 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⁴⁷⁾ 일본정벌 당시 피랍됐다가 원으로 돌아와 1282년 쿠빌라이로부터 백호를 하사받은 고려인들 역시, 당시 관료나 장수 외의 고려인들 또한 이런 직함을 받을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⁸⁾

그리고 1280년 11월, 충렬왕이 드디어 원제국정부에 만호직 수여를 요청한다. 2차 일본정벌을 앞두고 원에 사신을 보내, 고려인들이 일찍이 삼별초 토벌 및 일본정벌(1차, 1275)에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했음을 거론하며, 군사 1,000명당 총관과 천호 각 1인, 총파는 2인씩 지정해 폐면을 하사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총관으로는 박지량(상장군)을 비롯해 나유, 한희유(이상 대장군), 정수기(친종장군) 등이 추천됐고, 천호로는 조변(대장군)을 비롯해 8~9명이(이상 장군) 추천됐으며 총파로도 20여 명의 중랑장과 낭장들이 추천됐다(2차 정벌을 지휘할 박구와 김주정의 만호 기용도 별도 요청되었다).⁴⁹⁾ 그 결과 다음 달 김방경이 관령고려군도원수로 임명될 때 박구와 김주정은 좌우부도통(左右副都統)에 임명되었고, 박지량 등은 총관이 아닌 관군천호가 되었으며, 조

45) 『高麗史』 권102, 列傳15 李藏用 “(전략) 亦猶上國萬戶牌子頭數目未必足也 (후략) 藏用對曰, 我國昔有四萬軍三十年間死於兵疫殆盡雖有百戶千戶但虛名耳.”

46) 『高麗史』 권27, 世家27 元宗 12年(1271) 2月 乙卯 “遣將軍印公秀寶城千戶等如蒙古請罷屯田表曰 (후략)”

47) 『高麗史』 권121, 列傳34 孝友 金遷 “吾兄千戶孝至今往東京汝可隨去.”

48)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8年(1282) 12月 丙申 “東征時有峯城民沒于倭, 逃至元明州, 帝賜名更生授百戶遣還 (후략)”

49)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11月 己酉.

변 등은 천호가 아닌 총파직을 받게 된다.⁵⁰⁾ 1280년을 기점으로 ‘고려인 만호’ 시대가 본격화할 주요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나) 만호직 위상의 강화

이 만호들이 고려 안에서 ‘고위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재추를 만호로 내보내 동변(합포 등지로 짐작됨)을 지키게 한 1284년 조치로 알려져 있다.⁵¹⁾ 그러나 1280년 12월 밀직부사 상태에서 만호에 임명되고 곧이어 동지밀직사사가 된 김주정과 박구 등은⁵²⁾ 그런 인사가 1280년을 전후해 이미 시작 됐음을 보여준다. 1290년에 접어들어서는 재신으로 만호가 된 한희유의 사례(1292)가 확인되며,⁵³⁾ 김심은 전직 밀직부사 신분으로 만호를 역임하던 당시 추밀로 승급했다.⁵⁴⁾ 14세기 초에는 1309년 합포만호였던 권준이⁵⁵⁾ 전 해(1308)에는 승지이다가 이후(1310) 밀직부사로 승급됐고,⁵⁶⁾ 14세기 전반 사례로는 1334년 만호가 된 원충이 1331년과 1337년 찬성사로 확인된다.⁵⁷⁾ 이처럼 “재추급이 만호를 맡는 관례”가 13세기 말-14세기 초 구축되면서 만호를 고위직으로 간주

50)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12月 辛卯(총파 추천자들은 요청대로 총파를 받음).

51)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10年(1284) 1月 丁卯 “命以宰樞可兼萬戶者令鎮東邊.”

52)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6年(1280) 11月 己酉 “密直副使朴球金周鼎等就立萬戶前赴日本”; 12月 癸酉 “朴球金周鼎並同知密直司事”; 辛卯 “知密直司事朴球金周鼎爲招勇大將軍左右副都統 (후략)”

53)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18年(1292) 閏6月 甲戌 “鎮邊萬戶宋玢免以僉議府事韓希愈代之.”

54) 『高麗史節要』 권22, 忠烈王29年(1303) 8月 “致仕宰相蔡仁揆等二十八人及前密直副使萬戶金深等軍官一百五十人又詣使臣, 請罪吳禡”;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29年(1303) 11月 壬申 “金台鉉金深同知密直司事”; 권32, 世家32 忠烈王30年(1304) 1月 丙子 “金深知密直司事.”

55) 권준(權準, 1352년몰) 묘지명 “武毅將軍 合浦萬戶” (“1308년의 다음해”)

56) 『高麗史』 권32, 世家32 忠烈王34年(1308) 5月 丙戌 “李混崔鈞金元具與承旨權準齋濱陽王所定官制及批判還自元”; 권33, 世家33 忠宣王復位2年(1310) 9月 乙酉 “朴侶權準爲密直副使.”

57)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元年(1331) 11月 辛丑 “遣贊成事元忠如元賀正”; 원충(1337년몰) 묘지명 원통(元統) 2년(1334) “武德將軍 西京等處水手軍萬戶 兼 提調征東都鎮撫司事.”

하는 통념과 관행이 성립했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⁸⁾

만호의 위상은 아울러 그것이 원제국의 무산계(武散階)와 함께 제수된 정황으로 인해 더욱 확고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3세기 후반 이래 14세기 전반까지 원으로부터 만호직을 수여받은 고려인들은 대개의 경우 예외 없이 다양한 위계의 무산계를 함께 수여받았다.

〈표 1〉 고려인 만호관련직 수령자의 무산계 수령 현황⁵⁹⁾

원 무산계	수령자	수령시점	보유 만호직
진국상장군 (종2하)	김흔	1300년대 중반 ⁶¹⁾	만호
	김심	1308 ⁶²⁾	도원수
	윤석	1305-1310 ⁶³⁾	고려도원수
소용대장군 (정3중)	김주정	1281년 ⁶⁴⁾	만호
	인후	1281년 ⁶⁵⁾	진변만호
	김흔	1300년대 초 ⁶⁶⁾	만호
	조연수	13세기 말·14세기 초 ⁶⁷⁾	관군만호
회원대장군 (종3하)	한희유	1290년대 전반 ⁶⁸⁾	진변만호
	나유	1290년대 전반 ⁶⁹⁾	진변만호
	조서	1300년대 ⁷⁰⁾	고려국 부원수
명위장군 (정4하)	나유	1280년대 후반 ⁷¹⁾	중익부만호
신무장군 (종4상)	김문연	1300년대 후반 ⁷²⁾	진변만호 (부 달루가치)
선무장군 (종4하)	조인규	1280년 ⁷³⁾	단사관
	장순룡	1281년 ⁷⁴⁾	진변관군총관
	송분	1291년 ⁷⁵⁾	진변만호
	권렴	1325년 ⁷⁶⁾	합포진변만호
	김승용	1329년 ⁷⁷⁾	관군만호
	권용	1352년 ⁷⁸⁾	합포진변만호

〈표 2〉 시기별 무산계 수령현황⁶⁰⁾

수령자	시점	무산계
김부윤	1260-1274	5·정·하·무덕장
조변	1280	6·정·상·소신교
나유	1280	5·정·하·무덕장
조인규	1280	4·종·하·선부장
김중성	1280	6·종·하·충현교
박지량	1280	5·정·하·무덕장
김주정	1281	3·정·중·소용대
인후	1281	3·정·중·소용대
장순룡	1281	4·종·하·선무장
원경	1275-1300	5·종·하·무략장
정인경	1275-1300	5·정·하·무덕장
고종수	1275-1300	5·종·하·무략장
나유	1285-1290	4·정·하·명위장
유석	1291	6·종·하·충현교
송분	1291	4·종·하·선무장
김연수	1293	5·정·하·무덕장
나유	1290-1295	3·종·하·회원대
한희유	1290-1295	3·종·하·회원대

58) 변동명 역시 앞의 논문에서 충렬왕의 만호직 요청이 측근세력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맥락의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59) 〈표 1〉은 고려인으로서 원 무산계를 받았음이 『고려사』 및 문집, 그리고 각종 묘지명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사례들을, 수령한 무산계 품급의 고하(高下)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보유 만호직’은 당사자가 무산계 수령과 동시에 보유하게 된, 또는 그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만호·천호·백호·진무 등의 관직을 이른다. 수령 시점의 경우, 기사가 불명확한 경우 여러 도로 추정을 가해 보았다.

60) 〈표 2〉는 〈표 1〉의 내용을 원 무산계 ‘수령 시점’ 순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무덕장군 (정5하)	박지량	1280년 ⁷⁹⁾	관군천호	나익희	1290-1295	5·정·하·무덕장	
	나유	1280년 ⁸⁰⁾	관군천호	조연수	1290-1310	3·정·중·소용대	
	김연수	1293년 ⁸¹⁾	서경부만호	김흔	1300-1305	3·정·중·소용대	
	나익희	1290년대 전반 ⁸²⁾	상만호	조서	1300-1310	3·종·하·회원대	
	김부윤	원종대? ⁸³⁾	이문소 관	김흔	1300-1310	2·종·하·진국상	
	정인경	충렬왕대 ⁸⁴⁾	이문소 관	박광정	1300-1310	6·정·상·소신교	
	원충	1334년 ⁸⁵⁾	서경군만호	윤석	1305-1310	2·종·하·진국상	
	홍용	1339년 ⁸⁶⁾	전라진변만호	김문연	1305-1310	4·종·상·신무장	
	무의장군 (종5상)	권준	1310년 ⁸⁷⁾	합포만호	김심	1308	2·종·하·진국상
	무량장군 (종5하)	고종수	충렬왕대 ⁸⁸⁾	도진무·천호	권준	1310	5·종·상·무의장
소신교위 (정6상)	원경	충렬왕대 ⁸⁹⁾	정동행성 도진무	원선지	1310-1320	6·정·상·소신교	
	조변	1280년 ⁹⁰⁾	관군총파	권렴	1325	4·종·하·선무장	
	원선지	1310년대 추정 ⁹¹⁾	정동행성 도진무	김승용	1329	4·종·하·선무장	
충현교위 (종6하)	박광정	14세기 초 ⁹²⁾	서경수군 부만호	원충	1334	5·정·하·무덕장	
	김중성	1280년 ⁹³⁾	관군총파	홍용	1339	5·정·하·무덕장	
	유석	1291년 ⁹⁴⁾	관군천호	권용	1352	4·종·하·선무장	

61)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忤 “後襲父職佩金虎符仍授昭勇大將軍管高麗軍萬戶加鎮國上將軍 (후략)”

62) 김심묘지명 “(전략) 至大元年戊申宣授鎮國上將軍高麗兵馬都元帥 (후략)”

63) 윤지표묘지명(부친 윤석의 '진국상장군 고려도원수' 수여가 윤진표의 출생한 1310년에 앞서 기록됨). 물론 부친 윤석의 일생 기록이 윤지표 출생 기록과 선후관계를 갖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64)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周鼎 “(전략) 元將征日本王以周鼎有將略拜萬戶上書中書省請賜虎頭牌. 乃授昭勇大將軍右副都統賜虎頭金牌及印(1281)”; 김주정묘지명(1280년 '소용대장군 관군만호').

65) 『高麗史』 권123, 列傳36 畏幸1 印侯 “元於金州等處置鎮邊萬戶府以侯爲昭勇大將軍鎮邊萬戶 (후략)”

66)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附 忤 “後襲父職佩金虎符仍授昭勇大將軍管高麗軍萬戶加鎮國上將軍 (후략)”

67) 조연수묘지명(1277년생인 그가 20세가 된 지 얼마 안 돼 소용대장군이 됨).

68) 『高麗史』 권104, 列傳17 韓希愈 “(전략) 出拜東北面都指揮使帝命爲懷遠大將軍 (후략)”

69) 『高麗史』 권104, 列傳17 羅裕 “(전략) 以知密直司事如元賀正帝賜三珠虎符玉帶銀錠弓矢

이전에는 ‘자국’의 무관직 및 ‘문산계(文散階)’만 지녔던 고려 관료들에게, ‘원

劍鞍馬授懷遠大將軍.”

- 70) 『高麗史』 권105, 列傳18 趙仁規 附 瑞(1313년 몸) “帝授懷遠大將軍高麗國副元帥 (후략)”(1298년 이후 기록).
- 71) 『高麗史』 권104, 列傳17 羅裕 “(전략) 王之請親征乃顏也賜裕虎頭牌爲中翼副萬戶及班師策爲一等功臣, 賦錄面田一百結臧獲二十口授明威將軍帝賜雙珠金牌.”
- 72) 『高麗史』 권103, 列傳16 金就礪 附 文衍(증손) “(女弟 淑昌院)妃又寵於忠宣封王淑妃拜文衍僉議中護. 元授信武將軍鎮邊萬戶賜三珠虎符本國封彥陽君. 後率禿魯花如元又加鎮邊萬戶府達魯花赤.”
- 73)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年(1280) 12月 辛卯 “(전략) 趙仁規爲宣武將軍王京斷事官兼脫脫禾孫 (후략)”
- 74)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7年(1281) 10月 己亥 元勅 “(전략) 張舜龍爲宣武將軍鎮邊管軍摠管.”; 卷123 列傳36 璧幸1 張舜龍 “(전략) 元授宣武將軍鎮邊管軍摠管征東行中書省都鎮撫.”
- 75)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7年(1291) 9月 己亥 “元遣洪重慶授王爲征東行中書省左丞相以印侯鎮邊萬戶府達魯花赤宋玢爲宣武將軍 (후략)”
- 76) 『高麗史』 권107, 列傳20 權咀 附 廉 “(전략) 忠肅時授三司副使襲父爵爲宣武將軍合浦鎮邊萬戶後爲選軍別監授田有法人便之”; 권렴묘지명(1324년의 다음해 ‘선무장군 합포진변 만호부만호’ 제수).
- 77) 김승용묘지명(1329년 3월 선수 선무장군 관고려군만호 제수).
- 78) 권준묘지명[1352년 사망한 권준묘지명의 찬자 권용(孫)이 묘지명 찬술 당시 선무장군 합포등처 진변만호부만호로 기록됨].
- 79)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年(1280) 12月 辛卯 “(전략) 朴之亮等十人爲武德將軍管軍千戶 (후략)”
- 80) 『高麗史』 권104 列傳17 羅裕, “(전략) 又從方慶與元將忽敦等征日本遷鷹揚軍大護軍帝賜金牌授武德將軍管高麗軍千戶以賞軍功 (후략)”
- 81)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9年(1293) 6月 甲寅, “元以 (중략) 金延壽爲武德將軍西京等處管水手萬戶府副萬戶皆賜虎符.”
- 82) 나익희묘지명[그가 17세가 됐을 때를 전후해 부친 나유가 작고했고(1292), 그 후 관군상 만호 무덕장군이 됨].
- 83) 『高麗史』 권107, 列傳20 金富允 “(전략) 忠烈以世子如元富允從之, 雖值險艱執節不移, 世祖知其名授武德將軍征東行中書省理問所官 (후략)”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김부윤의 무덕장군 하사 시점은 원종대여서 지나치게 이른 감을 준다. 향후 더 분석을 요한다.
- 84) 『高麗史』 권107, 列傳20 鄭仁卿 “(전략) 三十一年卒年六十九謚襄烈. 性謹直初以舌人知名 所至有聲績嘗受帝命爲武德將軍征東省理問官.” 정인경이 무덕장군 및 이문관을 수여받은 시점은 그의 묘지명에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 85) 『高麗史』 권107, 列傳20 元傅 附 忠 “(전략) 忠肅復位忠落職因留元受帝命帶虎符爲武德將

제국 만호'라는 군직에 더해 원제국의 '무산계'까지 제공된 것은 커다란 문화충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정체성에 전혀 새로운 맥락이 더해진 셈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려인들이 받은 '만호직과 무산계'의 조합을 '원제국 내부'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⁹⁵⁾ 원제국이 고려인과 중국·몽골인들에게 만호직과 무산계를 주면서 양자에게 '동일한 만호직'을 주되

軍兼提調征東都鎮撫司事後五年東還卒"; 원충묘지명(1334년 무덕장군 서경등처수수군만호겸 제조정동도진무사사 됨)

- 86) 홍규妻김씨 묘지명(1339년 사망한 김씨의 아들 읉[戎]이 무덕장군 전라진변만호 대광삼사사로 기록됨)
- 87) 권준묘지명["권준을 무의장군(武毅將軍) 합포만호(合浦萬戶)로 삼았다(1310)."] 그런데 원 무산계에는 '武毅'라는 명칭이 없어, 오기일 가능성이 있다. 『高麗史』에는 권준이 받은 것이 "武衛將軍"으로 등장하는데[『高麗史』 권107, 列傳20 權詮 附 準 "(전략) 登第謁忠宣于燕邸擢爲代言自是恩寵愈隆賞賜無筭奏帝拜武衛將軍合浦萬戶"], 이 역시 글자로만 보면 원 무산계의 일부가 아니며 오히려 "무위 소속의 장군"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지만, 고려에 그런 이름의 '위(衛)'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무산계를 기록하려 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묘지명과 『고려사』 기록 모두 '武義장군'을 오기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88) 『高麗史』 권123, 列傳36 璞幸1 李之氏 附 [高]宗秀 "忠烈朝 (중략) 王表請于帝授武略將軍巡馬千戶賜金牌, 後加王京等處管軍萬戶府萬戶賜三珠虎符."
- 89) 『高麗史』 권124, 列傳37 璞幸2 元卿 "(전략) 詧受元命爲武略將軍征東行中書省都鎮撫帶金符."
- 90)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年(1280) 12月 辛卯 "(전략) 趙抃等十人爲昭信校尉管軍摠把賜銀牌及印 (후략)"
- 91) 원선지묘지명["아버지(원경, 충선왕대 사망)의 직책을 계승하여 선수 소신교위 정동도진무(宣授 昭信校尉 征東都鎮撫)가 되었다"]. 따라서 원선지의 소신교위 승계시점은 14세기 초로 추정된다.
- 92) 박거실妻원씨 묘지명(1335년 사망한 원씨의 남편 박거실의 부친 박광정이 '소신교위 고려 서경등처 수수군부만호 겸 광정대부 평양부윤'을 역임했다고 기록됨. 박거실 본인 및 그 아들 독만도 소신교위를 승계한 것으로 언급돼 있으나 시기는 미상)
- 93) 『高麗史』 권29, 世家29 忠烈王 6年(1280) 12月 辛卯 "(전략) 金仲成等二十人爲忠顯校尉管軍摠把."
- 94) 『高麗史』 권30, 世家30 忠烈王 17年(1291) 9月 己亥 "(전략) 劉碩爲忠顯校尉管軍千戶皆賜金牌."
- 95) 이강한, 2015 「원 법전을 통해 본 고려후기의 제도와 사회」, 한국역사연구회 중세1분과 공동발표회 "고려 만호부 제도의 도입과 전개, 그리고 유산"(2015. 9. 19) 발표문, 72면 〈표 1〉 '원제국인 보유 만호직' 참조.

고려인들에게 ‘낮은 무산계’를 주거나, 양자에게 ‘동일한 무산계’를 주되 고려인들에게 ‘낮은 만호직’을 주는 등, ‘차별’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다.

무산계와 만호직 수여에 있어 고려인과 원제국인들 사이에 별다른 법적 차별이 없었던 이런 상황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내내 계속됐을 것이다. 14세기 초 수령자들의 생존기간 및 만호직의 ‘세습’ 관행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초기에는 원으로부터의 만호직 수여를 경계하던 이들도 점차 그를 하나의 ‘기회’로 보게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제국과의 공존이 상수가 된 상황에서, ‘만호직과 무산계’를 매개로 원제국 질서 속 자신의 위상을 ‘재인증’받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만호부’들의 설치

한편 “만호직”의 위상이 강화된 데 이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280-90년대에 걸쳐 합포·전라도·왕경·서경·탐라 등 다섯 지역에 ‘원 만호부’들이 설치되었다. 설치시점은 각기 달랐으나 폐지는 1356년으로 동일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반세기 넘게 존속한 이들 만호부들이, 단순한 군사단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행정권력(외관의 권능)’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다. 만호부 만호로 임명된 고려인에게 무산계가 아닌 [원에서는 민정(民政) 외관(外官)들이 수여받곤 하던] ‘문산계’가 내려지거나(합포), 만호부가 고려의 ‘전통적’ 지역단위[京, 州道]에 설치되거나(“전라주도”, “서경”), 신설된 만호부 만호가 지역의 외관(평양부윤, 개경유수)을 겸임하거나, 심지어 ‘군민(軍·民)’ 만호부가 설치되는 등(탐라), 만호로 임명된 이들이 지역행정[“外政”]에 개입할 여지를 상당정도 부여받았던 것이다.⁹⁶⁾

사실 원제국에서도 만호부가 여러 기초·광역 단위에 고루 설치되었고, ‘만호[부]·천호[소]’들이 로·부·주·현[외관]으로 전환되곤 하였다.⁹⁷⁾ 심지어 “속정염방사[로(路)단위 외관]와 만호부, 그리고 군현”이라는 표현(1328)까지 등장

96) 이강한, 앞의 논문.

97) 『元史』 권58, 志10 地理1 中書省 真定路: 鼓城等處軍民萬戶府(1238)→晉州(1261); 권61, 志13 地理4 雲南諸路行中書省, 建昌路, 瀘沽“(전략) 至元九年平之, 設千戶. 十三年升萬戶, 十五年 改縣.”

하였다.⁹⁸⁾ ‘군사조직’ 만호부가 원제국 지방제도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려내 원 만호부들도 당연히 그와 흡사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렇듯 만호직과 무산계를 수여받는 순간 ‘원제국에서도 통하는’ 권위를 인정받고, 지역만호부의 만호직으로 부임하는 순간 지역 외정에 개입할 여지가 늘어나면서, 고려인들의 만호직 선호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이후 ‘만호직이 일반 군직들과 활발하게 결합’하는 토양이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만호직이 겸비한 군직으로서의 권능 및 외관(外官)으로서의 권위 등을 군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도력’을 담보해 줬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호의 이러한 위상은 13세기 후반-14세기 전반 구축됐던 것이고, 필자가 언급한 고려후기의 군제운용은 14세기 후반의 그 것이나, ‘만호직’ 자체가 구축한 상징성은 ‘원 만호부’ 시대(14세기 전반까지)를 넘어 ‘고려 만호부의 시대’(14세기 후반)로도 이어져 고려말 만호직들에 투영됐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 절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2) 14세기 중엽 이후

(1) 전통 군직들의 상황

14세기 전반 사료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원수, 지휘사, 순문사, 병마사 등은 14세기 후반 재등장하게 된다. 간헐적으로 임명돼 온 순문사 외에 ‘도순문사’가 1343년 9월 처음으로 출현했고,⁹⁹⁾ 이후 1347년 교주도, 서북면에 파견됐으며¹⁰⁰⁾ 1350년대 전반에도 여러 도에 파견됐다.¹⁰¹⁾ 그 밖에 도지휘사가 1350년 3

98) 『元史』 권32, 本紀32 英宗(文宗即位前) 致和元年(1328) 8月 己亥(肅政廉訪司·萬戶府·郡縣印 수거).

99) 『高麗史』 권36, 世家36 忠惠王 後4年(1343) 9月 丁卯 “以僉議評理康允忠爲楊廣全羅慶尙道問民疾苦使; 賛成事尹桓爲江陵交州道都巡問使; 右常侍全允贊爲西海平壤道巡慰使.”

100) 『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3年(1347) 1月 壬申 “以同知密直司全允贊爲交州道都巡問使(후략); 10月 辛巳 “以平壤尹金用謙兼西北面都巡問使.”

101)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2年(1350) 3月 庚辰 “全羅楊廣道都巡問使以備倭”; 권38, 世家38 恭愍王 即位年(忠定元年) “(전략) 巡問平壤道鏽留備倭賊”; 恭愍王 元年(1352) 7月 壬申 “全羅道都巡問使獲倭船(후략)”; 2年(1353) 10月 戊申 “下教慶尙道都巡問使

월,¹⁰²⁾ 병마사는 1356년 5월,¹⁰³⁾ 그리고 원수(도·부)가 1356년 9월 차례로 등장 한다.¹⁰⁴⁾ 오랜만에 재등장한 이들 군직들은 왜구와 흥건적을 방어하기 위해 1356년 이후 14세기 후반 내내 활발하게 임명됐다.

가) 원수

1356년 하반기 아래 도원수들이 서북면에 계속해서 파견된다.¹⁰⁵⁾ 고려정부가 임명한 ‘도원수’ 파견 사례로는 고려초 이후 처음이었음이 주목된다. 1361년말에는 ‘상원수’ 용례가 역시 고려초 아래 처음으로 등장한다.¹⁰⁶⁾ 1365년 가을에는 상·도·부원수가 한꺼번에 임명됐다.¹⁰⁷⁾ 아울러 1369년과 1370년에는 양계 원수(상·부)만 임명된 반면,¹⁰⁸⁾ 1374년 여름에는 하삼도 상·부원수 및 (그와 별개의) 3도 조전(助戰) 원수가 임명되는 등¹⁰⁹⁾ ‘양계 이외의 도(道)’에도 원수들이 처음으로 임명됐다.

주목되는 변화로는 1370년대 중반 이후 원수들의 파견 단위가 ‘다양’해진다는

曰 (후략)": 3年(1354) 7月 戊子 "楊廣道都巡問使 (후략)": 11月 乙亥 "全羅道都巡問使申仲臣獻倭馘."

102) 『高麗史』 권37, 世家37 忠定王 2年(1350) 3月 庚辰 “以延城君李權爲慶尙全羅道都指揮使.”

103)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5月 “以評理印璫同知密直司事姜仲卿爲西北面兵馬使 (중략) 以密直副使柳仁雨爲東北面兵馬使 (후략)”

104)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9月 癸未 “以曲城伯廉悌臣爲西北面都元帥, 刑部尙書柳淵判司宰寺事金之順上將軍金元命副之 (후략)” 고려초의 원수·부원수 체제 이후 ‘고려인 몽골도원수’가 아닌 고려정부가 임명한 도원수로는 첫 출현사례이다.

105)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8年(1359) 12月 庚午 “以守門下侍中李岱爲西北面都元帥.”

106)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10月 癸卯 “以叅知政事安祐爲上元帥 (후략)”

107)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4年(1365) 9月 乙亥 “以漆原府院君尹桓爲東西北面都統使; 評理禹禪爲都元帥; 知都僉議池龍壽爲上元帥; 前同知密直司事趙希古爲副元帥.”

108)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8年(1369) 11月 庚午; 卷42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8月 己巳

109) 『高麗史』 권44, 世家44 恭愍王 23年(1374) 7月 戊子 “己丑, 命門下贊成事崔瑩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密直提學廉興邦爲都兵馬使, 三司左使李希泌爲楊廣道上元帥, 判密直司事邊安烈爲副元帥, 贊成事睦仁吉爲全羅道上元帥, 密直林堅味爲副元帥, 判崇敬府事池齋爲慶尙道上元帥, 同知密直司事羅世爲副元帥, 各將其道兵, 知門下事金庚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 往討之.”

점을 들 수 있다. 1375년 서경·안주·이성 등에 원수가 등장했고,¹¹⁰⁾ 상·부원수 및 일반 원수들이 1376-1377년 양계와 각도는 물론 심지어 주(州) 단위에도 배치됐다. 1378-1379년에도 ‘도별’ 상·도·부·원수는 물론 주(州)·목(牧) 단위 일반 원수들이 끊임없이 관찰되며, 1379년 1월 원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올 정도로 원수의 수가 많아져 있었다.¹¹¹⁾ 다양한 급의 원수들이 양계는 물론 경¹¹²⁾·도·목(부¹¹³⁾)·주¹¹⁴⁾·강¹¹⁵⁾ 등에 빈번하게 임명되는 추세는 1380년 대에 접어들어서도 계속되었다.

물론 광역단위 파견도 계속되었다. 1380년 6월 “각도에 ‘삼원수’ 외 별도의 원수, 병마사 임명을 중지하고 (중략) ‘본도의 임’은 원수에게 온전히 맡기라”는 명령이 하달됐다.¹¹⁶⁾ 그리고 1387년 11월에는 각도 원수를 다시 증액하였다.¹¹⁷⁾

나) 순문사

도(道) 단위 도순문사들은 1350년대 후반 서북면,¹¹⁸⁾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¹¹⁹⁾ 강릉(삭방도) 그리고 평양¹²⁰⁾ 등에 활발히 파견됐다. 1361년 11월에는 특

110)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元年(1375) 8月 “西京上元帥：安州上元帥”；9月 “泥城元帥 (후략)”

111)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祔王 5年(1379) 1月 “(전략) 今元帥甚衆令出多門故體統紊亂紀綱不立. 請依舊制置一元帥餘則罷之, 加以他號並聽元帥節制 (후략)”

112)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3年(1377) 6月 乙卯 “以密直副使李仁立爲西京副元帥。”

113)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2年(1376) 12月 “裴克廉晉州道元帥 (후략)”；3年(1377) 4月 “以王賓爲安東道副元帥, 瑞城君崔公哲爲江陵道元帥。”

114)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3年(1377) 8月 戊午 “以三司右使崔公哲爲義州元帥”；庚申 “以贊成事楊伯淵爲安州上元帥。”

115) 『高麗史』 권134, 列傳47 祔王 7年(1381) 3月 “東江都元帥：西江都元帥。”

116)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祔王 6年(1380) 6月 “(전략) 國家已於各道置三元帥一道之任宜專委三元帥 (중략) 乞自今令本道之任專委三元帥 (중략) 毋得奪占以致紛擾 (후략)”

117)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祔王 13年(1387) 11月 “以西北有變, 加定各道元帥 (후략)” 1388년에는 36명의 원수가 확인된다[권137, 列傳50 祔王 14年(1388) 6月 己巳 “(전략) 光美沼桂承可等逃匿兩都統及三十六元帥詣闕拜謝還軍門外 (후략)”。]

118)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8月 庚寅 “以慶千興爲西北面都巡問使。” 13세기 후반의 순문사는 5도 지역에서만 등장하며, 그 밖의 출현사례는 1302년 서북면 출현례가 유일하다. 그런데 14세기 후반에는 서북면에도 자주 파견됐다.

119)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6月 庚申 “濟州都巡問使 (후략)”

이하게도 ‘병마사를 겹한’ 도순문사들이 중남부 여러 도에 임명됐다.¹²¹⁾ 1360년대 전반 내내 동·서북면 및 양광도, 경상도 등지에 도순문사가 빈번하게 임명된다. 심지어 1366년부터 1368년까지는 다른 군직은 전혀 임명되지 않은 채 “각도”와 “양계” 도순문사 파견사례들만 관찰된다.

도별 및 양계 도순문사 파견은 137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1377년과 1381년에는 이례적으로 서경,¹²²⁾ 1379년에는 합포에도 등장하였다.¹²³⁾ 그러나 1380년 이후에는 도순문사들이 [원수들과는 달리] 양계와 도(道)별로만 등장하여 ‘광역’ 위주의 파견 방침이 견지됐음을 보여준다. 원수, 지휘사, 병마사와는 달리 광역단위(‘도’)에만 파견되는 군정관으로 그 위상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 지휘사

도(都)지휘사의 경우 원수, 순문사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임명과 파견 빈도가 낮아져 간다. 1350년대 후반 서북면, 강릉교주도, 서해도 등지에 파견됐고 1359년 초 교동에도 방어지휘사가 파견됐으며,¹²⁴⁾ 도지휘사 임명이 1360년대 전반에도 파견되지만,¹²⁵⁾ 1360년대 후반에는 임명이 없어진다. 1370년대에도 1371년 동서강 파견 사례를 제외하고는¹²⁶⁾ 1375-1376년의 파견 사례만 관찰될 뿐, 이후에는 사실상 임명되지 않았다. 1380년대에 들어와서도 가끔 출현하지만, 1383년 말에는 ‘양광전라경상강릉도’ 도지휘사, 1385년 상반기에는 ‘4도’ 도지휘사로만 등장한다. 사실상 ‘상징적’인 존재로 변모한 것으로 짐작된다.¹²⁷⁾

120)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5月 “申青爲平壤道巡問使 (후략)”; 9月 “平壤都巡問使李餘 (후략)”

121)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11月 戊辰 “以柳濯爲慶尙道都巡問兼兵馬使; 李春富爲全羅道都巡問兼兵馬使”; 己巳 “(전략) 以尙書右僕射李成瑞爲楊廣道都巡問兼兵馬使, 知門下省事姜碩爲交州江陵道都巡問兼兵馬使.”

122)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3年(1377) 4月 “以密直副使慶儀爲西京都巡問使兼西北面副元帥.”; 7年(1381) 2月 “以朴林宗爲西京都巡問使.”

123) 『高麗史』 권134, 列傳47 祔王 5年(1379) 8月 “以前雞林尹金光富爲合浦都巡問使”; 11月 “以慶尙道元帥禹仁烈爲合浦都巡問使.”

124)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8年(1359) 1月 “喬桐防禦指揮使 (후략)”

125)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4년(1365) 3월 “以金續命爲東西江都指揮使.”

126) 『高麗史』 권43, 世家43 恭愍王 20年(1371) 7월 癸丑 “西江都指揮使 (중략) 東江都指揮使.”

라) 병마사

1356년 5월 쌍성과 압록강 작전 당시에는 동서북면에 여러 병마사와 부사들이 임명됐고,¹²⁸⁾ 1350년대 후반에도 내내 그려하였다. 1358년과 1360년에는 동서강, 교동, 경기 등 양계 이외 지역에도 등장했으며¹²⁹⁾ ‘병마도통사’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¹³⁰⁾ 1361년 상반기에는 동북면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서북면에 처음으로 ‘도병마사’가 등장했다.¹³¹⁾ 그리고 1361년 11월에는 병마사들이 고려시대 처음으로 ‘중남부 여러 도’에도 임명됐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도순문사를 겸한 형태로 등장하였다.¹³²⁾

한편 1362년에는 최초로 여러 “목 단위” 지역들에까지 ‘병마사’가 일괄 파견됐다(동경·안동·상주·진주·전주·나주·남경광주·청주·공주·충주도 등지).¹³³⁾

127) 『高麗史』 권135, 列傳48 禤王 9年(1383) 12月 甲戌 “鄭地爲海道都元帥楊廣全羅慶尙江陵道都指揮處置使;” 11年(1385) 4月 壬辰, “倭寇交州道以趙仁璧爲四道都指揮使.”

128)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6月 己亥 “以鄭暉爲西北面兵馬使; 洪巨源李思敬爲副使; 鄭綱爲江陵交州道都指揮使; 申青爲平壤道巡問使.”

129)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5月 “以李春富爲西江兵馬使; 安祐爲東江兵馬使; 前護軍李元琳爲喬桐倭賊追捕副使.” 십사자 중 한 분께서는 본고에서 ‘병마사’를 다루면서 (행정관으로서의) ‘양계 병마사’ 및 (군통솔관으로서의) ‘행영병마사’를 구분하지 않았음을 지적해 주셨으며, 논의 구분의 필요성에 필자 역시 공감한다. 다만 고려 중기 기록에는 전자가 후자의 역할을 한 사례들이 없지 않고, 사료에 등장한 ‘병마사’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 상황은 고려후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를 구분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계/중군·행영’이라는 전통적 구분방식을 사용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130)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9年(1360) 5月 “(전략) 以前平章事柳濯爲京畿兵馬都統使, 判樞密院事李春富爲東江都兵馬使, 我桓祖以判軍器監事爲西江兵馬使 (후략)”

131)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5月 甲寅 “以樞密院直學士韓方信爲東北面都兵馬使 (후략);” 10月 癸卯 “(전략) 政堂文學金得培爲(서북면)都兵馬使 (후략)” ‘도병마사’ 용례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염밀히 말하면 1360년 5월의 ‘동강 도병마사’이지만, “양계 도병마사”는 이때 처음 등장한다.

132)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11月 戊辰: 己巳.

133)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8月 庚戌 “以左政丞柳濯爲西北面紅賊防禦諸軍都統使; 密直使李珣爲都兵馬使; 金漢貴爲東京道; 許綱爲安東道; 金瑱爲尙州道; 李之泰爲晉州道; 成元揆爲全州道; 林堅味爲羅州道; 金桂生爲南京廣州道; 朴椿爲淸州水原道; 柳繼祖爲公州道; 張熙載爲忠州道; 金長壽爲交州道; 金庾爲江陵道兵馬使 (후략)”

한편 반년 뒤인 1363년 초에도 목에 병마사가 임명됐는데, 1년 전과는 달리 부평수원도

도단위 병마사 운영으로는 효과적인 외적 방어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이 밖에 여러 주(州)와 경기 좌우도 등에도 도병마사가 설치됐다.¹³⁴⁾ 마치 원수들의 경우처럼 ‘설치 충위’가 다양해진 것이다.

그러다가 1360년대 후반에는 거의 임명되지 않았다. 13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1374년 여름 처음으로 ‘3도 도병마사’가 등장하더니¹³⁵⁾ 이후에도 파상적으로만 임명되었다. 1378년 한양도와 순천에, 그리고 1379년 충주단양도와 청주 등지에 병마사가 파견되는 특이양상이 관찰될 따름이다.¹³⁶⁾ 1380년대에는 안동과 수원부 평도, 충주목 등 목 단위에도 파견됐지만¹³⁷⁾ 그 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389-1390년에 이르러서야 병마도통사, 병마절도사, 병마절제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종래의 병마사와 동일한 존재로 보긴 어렵다. 병마사제도의 퇴조는 그것이 여러 다양한 공간을 배경으로 파견되면서 그 성격이 변하고 급기야 다른 군직들과도 충돌하게 된 결과로 보이는데, 후술하도록 한다.

(2) ‘고려 만호부’의 동태

고려의 여러 군직들이 이렇듯 다양한 동태를 보이던 당시, 만호와 만호부들도 재등장해 주목된다. ‘원 만호부’들이 폐지된 지(1356) 2년도 채 안 된 1358년, 공민왕과 고려정부에 의해 여러 ‘고려 만호부’들이 설치됐던 것이다.¹³⁸⁾ 아울러 ‘고

및 홍주도에도 병마사가 설치됐다(恭愍王12年 5月 甲午).

134)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3年(1364) 3月 “(전략) 王命京畿右道兵馬使邊光秀, 左道兵馬使李善往護之 (후략)”: 5月 壬辰 “(전략) 爲都兵馬使屯靜州 (중략) 爲都兵馬使分屯江界 (중략) 爲都兵馬使屯和州以備東北.”

135) 『高麗史』 권44, 世家44 恭愍王 23年(1374) 7月 己丑 “(전략) 命門下贊成事崔瑩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 密直提學廉興邦爲都兵馬使 (후략)”

136)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4年(1378) 3月 “漢陽道助戰都兵馬使 (후략)”: 권134, 列傳47 祔王 5年(1379) 9月 “以李乙珍爲忠州丹陽道兵馬使, 張伯淵爲淸州兵馬使, 分領諸將卒以備倭寇”; 『高麗史節要』 권30, 祔王4年(1378) 10月 “都巡問使池湧奇順天兵馬使鄭地追及於玉果縣, 賊入彌羅寺”

137) 『高麗史』 권134, 列傳47 祔王 7年(1381) 5月 “安東兵馬使”: 11月 丙戌 “以前典工判書崔賢進爲水原富平道兵馬使”: 祔王11年(1385) 10月 “忠州兵馬使”

138) 본고에서는 원재국이 설치한 1356년 이전의 만호부는 ‘원 만호부’로, 고려정부가 설치한 1356년 이후의 만호부들은 ‘고려 만호부’로 지칭했다.

려 만호부’들이 단순한 군사단위에 머무르지 않았음이 눈에 띈다. 그 수장으로서의 만호들이 소재지역의 ‘외관(外官)’들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갔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¹³⁹⁾

1358년 새로이 설치된 고려 만호부들은 경(서경), 도(삭방도), 주(안주) 등 여러 지역단위에 두루 설치되었고, 1350년대 말-1360년대 초에는 “만호와 외관의 겹직” 사례도 확인된다.¹⁴⁰⁾ 1369년에는 외관이 만호부가 되거나 만호부가 외관이 되는 등 양자 간 “상호변환” 사례들도 발견되고,¹⁴¹⁾ 1370년대에는 진변도호부사, ‘진변도호부 안무사’ 등 만호부(또는 ‘准-만호적’ 존재)와 외관의 ‘연동’ 사례도 출현하기 시작한다.¹⁴²⁾ 급기야 1390년대 들어 만호가 감무를 겸하는 등 만호[부]

139) 최근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14세기 전반까지의 ‘원 만호부’들은 군사적 권한 외에 정치적 위상, 경제적 권능을 함께 키워 갔으며, 그를 토대로 하나의 ‘지역단위’로서 고려사회에 정착, 존속했던 것으로 판단된다(이강한, 앞의 논문).

140) 1357년 추밀원직학사 김득배가 ‘서북면 도순문사/ 서경윤/ 상만호’에 임명됨으로써, 도순문사이자 상만호 직을 갖 받은 상태에서 서경윤도 겹하게 된 사실이나(『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6年 11月 庚申 “以樞密院直學士金得培爲西北面都巡問使兼西京尹上萬戶”), 1361년 양광도 관군상만호로서 남경윤을 겹한 홍선, 양광도 부만호로서 경주목사를 겹한 조희고의 사례들이 그를 보여준다(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 11月 丁丑 “將軍洪瑄自請爲遊擊將軍, 王嘉之, 擢爲南京尹楊廣道管軍上萬戶, 以趙希古爲廣州牧使楊廣道副萬戶”).

141) 동계 함주는 쌍성 수복 당시 지함주사가 됐고, 이후 만호부가 되었다가 1369년 다시 목이 됐으며(『高麗史』 권58, 志12 地理3 東界-咸州 “恭愍王五年收復舊疆爲知咸州事, 尋改萬戶府, 置營, 聚江陵慶尙全羅等道軍馬防守, 十八年陞爲牧”), 넝주와 의주는 반대로 1369년 만호부가 되었다[권58, 志12 地理3 北界-安北大都護府 寧州 “恭愍王18年 置安州萬戶府, 後陞爲牧 (후략)”: 寧州/義州 “恭愍王15年 隸爲牧, 18年 置萬戶府”]. 물론 이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상황에서 행정적 주를 군사적 만호부로 개편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주와 만호부 간의 동질성, 상호가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를 지역이 그 지정학적 특성상 ‘순수 지역단위’나 ‘순수 만호부’ 등 어느 한쪽으로만 확정되기 어려워 필요에 따라 만호부 또는 외관을 번갈아 설치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크게 공감하지만, 그 자체가 당시 외관과 만호부가 지방행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공유’했음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라 생각되며, 더 나아가 그를 ‘북면 지역에 국한된 현상’으로만 보기보다는, 당시 여러 사례에서 관찰되는 ‘역할 공유’의 양상이 ‘북면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42) 『高麗史』 권42, 世家42 恭愍王 19年(1370) 11月 乙巳 “女眞達麻大遣使獻地以達麻大爲大

가 사실상 ‘외관’의 기능을 하게 된다.¹⁴³⁾ 만호부와 외관들의 ‘상호 연관성’, 그리고 만호들의 ‘외관적 성격’이 날로 강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⁴⁴⁾

14세기 후반 고려만호부들의 이러한 속성이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14세기 전반까지 존속한 ‘원 만호부’들이 구축한 지역단위로서의 성격을 승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338년 사망한 이언충의 사례가 그를 시사한다. 그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경상도진변(慶尙道鎮邊) 행금주목사(行金州牧使)’를 역임했는데,¹⁴⁵⁾ 여기서 ‘경상도 진변’은 ‘합포진변만호(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합포 만호직에 임명된 이언충이 금주목의 외관직도 겸했다는 얘기가 된다. ‘원 만호’들이 고려의 외관 민정[‘外政’]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14세기 후반 ‘고려 만호’들이 보였던 모습 또한 14세기 전반 원 만호(부)들에서 유래, 연원한 바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¹⁴⁶⁾

將軍 ‘鎮邊都護府使’ 賜衣”: 12月丙辰 “以禮部尙書張子溫爲 ‘鎮邊都護府安撫使’” ‘진변’이라는 용례 자체가 만호부의 도입 이후에나 고려측 사료에 등장하는 개념이어서, 필자 역시 이를 만호부 운영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였다. 다만 그것이 ‘도호부사’와 결합했다고 해서 이를 ‘만호부와 외관의 통합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추후 더 검토해 보고자 한다.

143) 『高麗史』 권56, 志10 地理1 楊廣道-天安府/新昌縣 “恭讓王3年(中략) 築城縣西, 獅浦收旁, 近州縣租載舟浮海, 達于京師, 始置萬戶兼監務”: 권57, 志11 地理2 慶尙道-東京留守官慶州/延日縣 “恭讓王2年(中략) 置監務以管軍萬戶兼之(후략).” 일부 속현 지역에 지방관을 새로 파견하지 않아도 현장에 파견돼 있던 만호가 감무직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서 판단했다면, 그 자체가 지방관직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 및 여건 등이 만호에게 구비, 축적돼 있었던 상황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144) 물론 여기서 살펴본 만호직과 외관직 연동 사례들은 엄밀히 말하면 ‘만호의 외직 겸직’, ‘외관의 만호 겸직’ 사례로서, 본질적으로는 ‘한 관료가 두 직임을 동시에 맡는’ 사례들이었을 때이다. 따라서 그를 ‘만호직의 외관적 성격 강화’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라는 지적도 당연히 성립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더구나 14세기 후반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필자는 그 점을 감안, 사례들이 거듭되고 경험도 누적되면서 만호직의 성격 자체에도 변화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이런 표현을 쓴 것이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145) 이언충묘지명(1338년 사망) “(전략) 軍簿佐郎·正獻大夫·大司成·進賢館提學·知製敎·通憲大夫·檢校選部典書·行典儀令兼司憲執義·提點典○司事·平壤道存撫使·行平壤府尹·慶尙道鎮邊·行金州牧使(후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세기 후반 고려의 여러 군직들은 실로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고려 전·중기 임명이 부진했든(원수) 활발했던(병마사), 지역과의 연고가 존재했던(지휘사, 이후 순문사) 아니었던 간에, 모든 종류의 군직들이 1350년대 후반-1360년대 내내 활발하게 파견됐다. 그러다가 137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군직별 임명 빈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원수와 순문사의 임용은 여전히 활발하고 임명방식도 다채로워졌던 반면, 지휘사와 병마사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런 와중에 14세기 후반의 ‘고려 만호부’는 일찍이 13세기 후반 지역에서 일정한 위상을 구축하고 14세기 전반 외관들과의 공조 또한 제한적으로 나마 경험했던 ‘원 만호부’들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으로 지방행정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갔음이 주목된다. 고려초 아래 존재해 온 총 4종류의 전통 군직들 중 2개가 국방의 핵심축이 되었고 2개는 서서히 도태됐으며, 그 와중에 외래 제도로서의 만호(부)는 전재했던 셈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경우, 고려의 전통 군제와 만호(부) 제도를 분리 검토해 왔다. 후자(만호제)는 새로 도입된 이질적 요소로서, 기존 군제를 구축(驅逐)한 후 그 자리를 차지한 ‘대체제’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변동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양자 간에 묘한 상관성 또는 인과관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감지된다. 외래제도가 도래하던 시기 전통군직들이 앞서 소개한 모종의 변화를 보인 것이 그저 우연의 소산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얘기다.

146) 물론 이언충이 금주목사의 업무 및 합포만호로서의 임무를 ‘별도’ 수행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 그럴 경우 ‘합포만호로서 금주목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평가 역시 부적절할 수 있다. 다만 한편으로, 양 업무가 전혀 별개로 운영됐을 가능성은 양 직임이 별도의 인물로 채워졌을 경우에나 상정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 인물이 두 직임을 겸하게끔 발령을 낸 사실 자체가 두 직임이 사실상 연동돼 있는 상황에서만 가능했을 조치로 해석되며, 더 나아가 두 직임을 연동시키고자 한 의도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럴 경우, 양자의 업무와 권한이 중첩되면서 (가) 만호가 외정에 개입하는 동시에 거꾸로 (나) 외관이 만호부 운영에도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전개된 것이라 보는 것이 온당하리라 생각된다.

3. 14세기 후반 진행된 변화의 성격

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핵심 군직들 간의 ‘통합’ 양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수와 순문사가 겸직되며 사실상 통합 운영되는 추세가 10여 년 가까이 지속된 것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양자의 별도 운용 관행이 여러 폐단을 야기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원수와 도순문사가 공존하면서 군 지휘·관리체계가 불분명해지고, 군기도 문란해지는 문제가 있어 통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¹⁴⁷⁾ 필자도 그러한 진단에 공감하지만, 그런 통합운용을 가능케 할 여건이 당시 조성돼 있었는지는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런 통합이 일종의 군령관(軍令官)-군정관(軍政官) 간의 결합이기도 했던 만큼,¹⁴⁸⁾

147) 권영국, 앞의 논문, 95면. 실제로 1388년 6월 우왕의 교서에 “각 도의 원수, 도순문사, 안렴사 및 지역[주·부]의 상·하[대·소] 군민관들이 모두 사선(私膳)을 올리는 것의 폐단”이 언급돼 있다[『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祔王 14年(1388) 6月 教曰: “近年各道元帥都巡間按廉使州府大小軍民官營進私膳，皆令禁斷違者罪之（후략）”]. 다음 달 조준의 상서에도 ‘순문사가 선발한 사신’과 여러 ‘원수가 과견한 자’들이 모두 역마를 타고 주군을 횡행하는 문제가 지적돼 있다[권82, 志36 兵2 站驛 祔王 14年(1388) 7月 “大司憲趙浚等上書曰（중략）以巡間按廉之差使諸元帥之發遣亦皆乘驛橫行州郡馳騁館驛（후략）”]

148) 본고에서 ‘군령관’은 ‘군사 지휘관’으로, ‘군정관’은 ‘군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담당하는 관료’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전자의 경우 대체로 상식과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용어 구사라 생각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군정(軍政)’이라는 단어가 ‘군령’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恭讓王 元年 12月 “願自今前銜四品以上屬之三軍，軍置將佐，五品以下屬之府衛而統于軍簿使，上下相維，體統相聯，軍政出于一，衆心統于一，然後申明軍令，訓鍊士卒百萬之衆，如身之使臂臂之使指”). 권영국의 경우 “원수”는 ‘지휘’를, 그리고 “순문사”는 (지방군 지휘보다는) 도내의 군사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도단위 최고군정책임자였을 것으로 본 바 있다(위의 논문, 96면). 본고에서도 그에 준하여 군정관을 ‘군사행정 담당관’의 의미로 썼음을 밝힌다. 실제로 순문사들은 군량확보나 인적자산관리(“충군”) 등의 ‘군정(군사행정)’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대 이미 군량 확보에 나섰던 정황이 있고, 1340년대에는 문민질고사와 함께 지역에 파견되거나[권36, 世家36 忠惠王 後4年(1343) 9月 丁卯 “以僉議評理康允忠爲楊廣全羅慶尙道問民疾苦使；贊成事尹桓爲江陵交州道都巡間使（후략）”] 쌍성지역 인구점검에도 나섰으며[권37, 世家37 忠穆王 3年(1347) 1月 壬申 “以同知密直司事全允臧爲交州道都巡間使令檢括雙城人口”] 1350년대 전반에는 전공포상 및

양 업무가 지역을 매개로 하나의 직임(또는 복수 직임을 겸직한 관료 1인)으로 수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수와 순문사의 통합 운영은 군령관인 전자(원수)가 후자(순문사)의 영역인 군정(軍政)에, 그리고 군정관인 후자가 전자의 영역인 군령(軍令)에 개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군령관과 군정관이 ‘전략·지휘’와 ‘군액 관리’를 분담하던 종전과 달리, 각자 상대방의 담당분야에 대해서도 조예는 물론 권한을 가졌어야 실현 가능했을 상황이다. 아울러 양자가 공유했던 지역의 ‘내부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시의적 이해 위에나 성립 가능했을 조치이다. 다시 말해 양 군직 모두 ‘소재지 행정권력’ 즉 ‘외관’과 안정적 공조를 취해 왔을 때에나 가능했을 결합이다.

원수-순문사의 통합운용이 10여 년 가까이 지속된 것을 보면, 당시 군령관(원수)과 군정관(순문사) 모두 서로 통합운용될 정도의 ‘지역적 연고’를 강하게 구축해 두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겠다. 다만 과연 어떤 연유를 거쳐 원수나 순문사가 그렇듯 강한 지역성을 띠게 된 것인지 대단히 궁금하다.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만호(부)’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군사단위로서의 만호부 자체가 [1356년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지역단위적’ 성격을 강하게 띠었으며,¹⁴⁹⁾ 공교롭게도 14세기 후반 전통군직들과 ‘만호들’ 간의 결합사례들이 확인된 후, 군직들의 외관적 성격 강화 추세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전통 군직들의 성격변화 및 외정 간여폭 확대에 (앞서 살펴본) 만호들의 지역단위적 성격이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장에서는 우선 그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변화가 군직들 간의 통합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변화가 군제와 외정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에도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음을 살펴보자 한다.

포로관리에도 나선 데다가[권38, 世家38 恭愍王 2年(1353) 10月 戊申 “下教慶尙道都巡問使曰: ‘海寇連年爲邊患, 每念何日報平, 今省卿申報擒倭至十餘級予甚嘉之賜卿酒及銀五十兩. 所管軍士有功者以名聞予將錄用’”; 권39, 世家39 恭愍王 5年(1356) 9月 癸未 “平壤都巡問使李餘慶獻俘女眞男女二十餘人分置楊廣道”] 1360년대초에는 군사긴장지역에서 강역 결정에도 나섰기 때문이다[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12月 癸未 “以壽春君李壽山爲東北面都巡問使定女眞疆域”].

149) 이강한, 앞의 논문.

1) 군직과 만호의 접목, 군직과 외관직의 결합

(1) 원수·순문사와 '만호'의 결합

가) 원수

원수의 경우, 1360년대 전반 원수가 만호와 '간접결합'하거나 서로 '호환·연동'되는 정황들이 발견된다. 우선 '도원수부'에 (만호부 제도의 일부로서의) '진무(鎮撫)'가 존재했음을 1363년 12월 하을지(河乙沚)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⁵⁰⁾ 동일시점 동일인의 직책이 한쪽에서는 원수로, 한쪽에서는 만호로 임명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고려사』 기사에는 '안주원수'로, 『고려사절요』에는 '안주만호'로 기록된 최원지(崔元沚, 1379년 윤5월)의 사례가 그렇다.¹⁵¹⁾

이 밖에 '연동운영'의 양상도 관찰된다. 1369년 11월 서북면에 도통사, 부원수 및 만호, 천호들이 설치돼 '원수'와 '만호·천호'가 나름의 위계구조 내에서 운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¹⁵²⁾ 1378년 12월에는 "각도"에 계점원수를 파견해 군익을 설치했는데, "군익마다 [만호의 하부단위로서의] 천호, 백호들이 설치"되기도 하였다.¹⁵³⁾ 1388년 8월 서북면 원수 및 만호의 수 과다에 대한 지적으로 시작된 헌사의 상소에서 "각도(하삼도까지 포괄한 건의인 것으로 보임) 원수와 상만호를 각 1인씩으로 축소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도 원수와 만호를 하나의

150)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12年(1363) 12月, "(전략) 都元帥府鎮撫河乙沚曰 (후략)"

151) 『高麗史』 권134, 列傳47 辛禡2, 祔王 5年(1379) 閏5月 “安州元帥崔元沚擊倭于永清縣，敗之”；『高麗史節要』 권31, 祔王 5年(1379) 閏5月 “安州萬戶崔元沚擊倭于永清縣，敗之。” 당사자가 양 직함을 겸하고 있던 상황을 두 사료가 각기 달리 묘사한 것이거나(예컨대 최원지가 원수와 만호직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원수로서 왜구를 소탕했다'는 기록 및 '만호로서 왜구를 소탕했다'는 기록 모두가 성립하는 상황이었던 탓에, 양 사료가 각기 두 표현 중 하나를 택한 결과, 두 사료에 기록된 당사자의 직함이 '우연히' 달리 기재돼 버린 것에 불과하거나), 두 관직이 으레 겹직되는 것이 당시의 추세여서 발생한 특수한 표기관행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흥미로운 정황임에는 틀림없다.

152)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8年(1369) 11月 庚午 “以守門下侍中李仁任爲西北面都統使，賜大纛以遣之。王嘗巡御西京，製大纛置官守衛，以時致祭，至是授仁任出鎮，禡于大清觀及行，令五軍衛送于黃橋，又以密直副使楊伯顏爲副元帥，東西北面要害多置萬戶千戶，又遣元帥，將擊東寧府，以絕北元。”

153)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祔王 4年(1378) 12月 “都堂議置軍翼，遣各道計點元帥，下旨：‘限倭寇寢息、依西北面例，各道皆置軍翼，擇清白能射御者，自奉翊至四品爲千戶，五六品爲百戶，衆外爲統主，千戶統千名，百戶百名，統主十名，錄軍籍 (후략)’”

‘조합’으로 운용하던 당시의 관행을 보여준다.¹⁵⁴⁾ ‘수군만호와 각도원수’로 하여금 둔전경영·전함건조·인심위무 등 지역 업무에 매진케 한 것 역시¹⁵⁵⁾ 원수와 만호 간의 공조가 정착한 상태임을 드러낸다.

나) 순문사

순문사의 경우, 만호와의 결합이 원수보다도 더 활발히 확인된다. 이미 14세기 전반 ‘경상전라도 순문사로서 합포(만호부)를 함께 관장했던’ 김승용·김륜의 사례들이 확인되지만, 1350년대 말에도 유사한 사례가 1357년 11월 서북면 도순문사와 만호직을 겸한 김득배에게서 확인된다.¹⁵⁶⁾ 그에 더하여 순문사들이 (종래의 만호제도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진변사’를 겸하는 사례가 1360년대 전반 2 건 더 확인된다. 1361년 5월 ‘경상도 도순문진변[만호부]사’로 나타나는 강중상이나¹⁵⁷⁾ 1362년 8월 ‘양광도 순문진변[만호부]사’로서 도순문사로 승격한 최영의 사례가 그것이다.¹⁵⁸⁾

게다가 이 사례들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확인되는(1358.4, 1358.6, 1362.4) 합포, 전라도, 양광도의 ‘진변사’들까지 고려하면,¹⁵⁹⁾ 만호직이 순문사를 겸했던(또는 순문사가 만호직을 겸한) 사례는 실로 여러 건으로 늘어난다. 1350

154)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禱王 14年(1388) 8月 “憲司上疏曰：‘西北一面國之藩屏，頃者奸凶擅國廣置私人，元帥萬戶加於舊額，州郡供億不訾，民不堪命，相與流亡。願自今擇文武兼備威望宿著者，一道元帥一人，上副萬戶各一人，餘皆罷之 (후략)’”

155) 『高麗史』 권82, 志36 兵2 屯田, 禱王 14年(1388) 8月 “憲司上疏曰：‘(전략) 專仰水軍萬戶府，修立城堡，屯其老弱，遠斥候，謹烽燧，居無事時耕耘漁塙鑄冶而食，以時造船，寇至則清野入保，水軍出船擊之。(중략) 水軍萬戶·各道元帥能立屯田，能修戰艦，能結人心，能施號令，能滅賊，能安邊者，賜之島田，世食其入傳之子孫 (후략)’”

156)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6年(1357) 11月 庚申 “以樞密院直學士金得培爲西北面都巡問使兼西京尹上萬戶 (후략)”

157)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10年(1361) 5月 甲寅 “前都僉議評理姜仲祥爲慶尙道都巡問鎮邊使。”

158)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8月 己酉 “以楊廣道巡問鎮邊使崔瑩爲都巡問使。”

159) 『高麗史節要』 권27, 恭愍王 7年(1358) 4月 “以前合浦鎮邊使柳仁雨不能禦倭，下巡軍”；『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7年(1358) 4月 丁酉 “倭寇韓州及鎮城倉，全羅道鎮邊使高用賢請徙沿海倉廩於內地從之”；6月 乙未 “全羅道鎮邊使獻倭俘八人”；권40, 世家40 恭愍王 11年(1362) 4月 “以密直副使李龜壽爲全羅道鎮邊使；典理判書崔瑩爲楊廣道鎮邊使。”

년대말 서북면에서 시작된 순문사-만호 겸직 추세가 1360년대 시작을 전후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됐던 셈이다. 아울러 이런 양상은 1370년대에도 이어졌는데, 우왕 즉위초(1374) 상만호로 임명되고 1375년 4월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윤으로 임명된 이자송의¹⁶⁰⁾ 사례가 확인되며,¹⁶¹⁾ 순문사와 그 휘하 도진무가 함께 처벌된 사례는(1373년 10월 양광도 도순문사와 휘하 도진무 공동처벌)¹⁶²⁾ 순문사제도와 만호제도의 또 다른 연동상을 보여준다.

양 군직이 각기 만호부와 결합했던 이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러나 고려의 전통군직이든 외래제도로서의 만호든 모두 군직이었으므로, 효율적 국방태세 구축 또는 작전 운용을 위해 결합, 공조, 연대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해 볼 따름이다. 일찍이 13세기 후반(1281) 일본정벌 당시 ‘(관령) 고려국도원수’ 김방경이 고려인만호와 원제국만호 모두를 지휘했던 점,¹⁶³⁾ 14세기 전반의 경우 여러 군직 중 순문사가 만호와 함께 운용된 점 등이 고려됐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결합하면서 생겨난 변화이다. 만호부들은 원제국내에서도 군직이었고 고려에서도 군직으로 운영됐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관과의 관계 또한 확고히 구축했던 존재이다. 그에 비해 고려의 전통 군직들은 적어도 이전에는 [비록 도 단위 파견사례는 있었으되] 외관들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거나 긴밀하지는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고려군직과 만호가 결합할 경우, 이미 복합적 성격을 지녔던 만호가 고려군직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크며, 그 ‘영향’의 내

160) 『高麗史』 권111, 列傳24 李子松 “(전략) 辛禡時以三司左使爲巡衛府上萬戶 (후략)”: 권133, 列傳46 辛禡1 禥王 元年(1375) 4月 “以判密直李子松爲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尹.”

161) 오종록의 경우, 충렬왕대 아래 진변만호부 만호들이 도순문사직을 겸하며 담당해 온 임무가 진변만호부 및 만호직들의 폐지 후 도순문사에 넘겨지면서 도순문사 직함에 ‘진변’이 추가된 것으로 본 바 있다(오종록, 앞의 책, 48면). 14세기 전반 이전의 ‘원’ 만호(부) 제도와 14세기 후반의 고려 도순문사 제도가 결합한 것으로 본 셈이다. 그에 비해 필자는 동시기(14세기 후반)를 배경으로 ‘고려’ 만호(부) 제도와 도순문사제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 쪽이든 ‘만호부의 성격이 순문사의 그것에 반영돼 갔을’ 가능성은 전제로 하고 있다.

162) 『高麗史』 권44, 世家44 恭愍王 22年(1373) 10月 乙酉 “崔瑩以楊廣道都巡問使李成林不能禦倭杖配烽卒, 斬其都鎮撫池深.”

163) 『高麗史』 권104, 列傳17 金方慶 忠烈王 7年(1281) 3月: 15년(1289).

용은 군직과 외관 간 친연성의 강화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군직-만호’ 간 결합사례가 등장한 후, ‘군직-외관’ 결합 사례들도 출현하기 때문이다.

(2) 원수·순문사와 ‘외관’의 결합¹⁶⁴⁾

가) 원수

원수의 경우 외관과의 직접적 겹직사례들이 1360년대 말 확인되기 시작한다. 1369년 지용수가 서북면 원수와 평양윤을 겸했고,¹⁶⁵⁾ 1372년 이성계는 원수이면서 화령부윤을 겸하였다.¹⁶⁶⁾ 1376년에는 나세가 전라도 상원수이면서 도안무사를 겸하였고,¹⁶⁷⁾ 1379년에는 박수경이 안동도 원수 겸 [안동]부윤으로 임명됐다.¹⁶⁸⁾ 한양도 원수였던 조림은 1386년 2월 한양부윤을 겸했으며,¹⁶⁹⁾ 권화는 1387년을 전후하여 전주목사로서 원수직을 겸하기도 하였다.¹⁷⁰⁾ 앞서 살펴던 바와 같이 원수와 만호의 겹직 또는 연동운영이 1350년대 말 시작돼 1360년대 본격화됐던 만큼, 1360년대말의 ‘원수-외관 겹직사례’라는 새로운 추세 또한 그와 관련시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겹직사례의 출현으로 인해 원수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 갔을지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원수의 외관 겹직은 당연히 원수의 외정 개입 또는 민정 간여 가능성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상황이 누적, 반복되면서 여러

164) 본고에서는 ‘겹직’이라는 현상을 지칭함에 있어 ‘결합’ 또는 ‘통합운영’ 등의 표현들을 사용했지만, 겹직된 복수 관직(복수의 군직, 군직과 만호직, 또는 군직과 외관직)들이 각기 관할하던 공간과 직무가 서로 동일했는지 또는 달랐는지의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그런 용어의 사용에 신중할 필요도 없지 않다. 필자로서는 한 관료가 복수의 직을 겸하는 상황이 거듭되는 와중에 겹직된 직임들 간의 경계가 약화돼 갔음에 착목했으며,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채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165) 『高麗史』 권41, 世家41 恭愍王 18年(1369) 11月 庚午 “池龍壽爲西北面元帥兼平壤尹.”

166) 『高麗史』 권43, 世家43 恭愍王 21年(1372) 6月 己亥 “以我太祖爲和寧府尹仍爲元帥以禦倭賊.”

167) 『高麗史』 권133, 列傳46, 祔王 2年(1376) 閏9月 “以羅世爲全羅道上元帥兼都安撫使.”

168) 『高麗史』 권134, 列傳47, 祔王 5年(1379) 6月 “朴修敬爲安東道元帥兼府尹.”

169) 『高麗史』 권136, 列傳49 祔王 12年(1386) 2月 “趙琳爲漢陽道元帥兼漢陽府尹.”

170) 『高麗史』 권107, 列傳20 權畊 “(전략) 累官至密直副使出牧全州兼元帥 (후략)”; 권136, 列傳49 祔王 13年(1387) 11月 “全州元帥權和 (후략)”

군적 임명자들의 외정 경험도 축적돼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것이 군직들 사이의 통합 배경이 되기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나) 순문사

한편 순문사 역시 외관들과 다양하게 결합했다. 우선 서북면 도순문사가 서경 윤을 겸한 사례들이 자주 등장한다. 1357년 11월 김득배가 서북면 도순문사로서 서경윤을 겸했고,¹⁷¹⁾ 1363년 2월 이인임이 서북면 도순문사 겸 평양윤에 임명됐으며,¹⁷²⁾ 1375년 4월에도 이자송이 서북면 도순문사 겸 서경윤으로 임명됐다.¹⁷³⁾ 아울러 1378년 11월 황숙경이나¹⁷⁴⁾ 1388년 8월 정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¹⁷⁵⁾ ‘동북면’에서도 도순문사가 화령부의 윤을 겸하는 사례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이 모든 사례가 순문사-만호 결합사례가 확인되는 1350년대 말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다.¹⁷⁶⁾

그 결과 순문사들 역시 (원수들처럼) 외관의 임무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만한 역량을 키우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 순문사와 외관들의 결합사례들이 나타난 데 이어 14세기 말에는 순문사가 사실상 외관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늘었음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1360년대까지는 포로나 변방강역 관리 등에 집중 하지만, 137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민정에 간여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71) 『高麗史』 권39, 世家39 恭愍王 6年(1357) 11月 庚申 “(전략) 金得培爲西北面都巡問使兼西京尹上萬戶 (후략)”

172) 『高麗史』 권40, 世家40 恭愍王 12年(1363) 2月 甲申 “(전략) 李仁任爲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尹.”

173) 『高麗史』 권133, 列傳46 禱王 元年(1375) 4月 “以判密直李子松爲西北面都巡問使兼平壤尹.”

174) 『高麗史』 권133, 列傳46 禱王 4年(1378) 11月 辛巳 “(전략) 黃淑卿爲東北面都巡問使兼和寧府尹.”

175) 『高麗史』 권137, 列傳50 禱王 14年(1388) 8月 戊申 “(전략) 陸麗爲東北面元帥鄭曜爲都巡問使兼和寧尹.”

176) 물론 서북면 도순문사 김용겸이 평양윤을 겸하는 사례가 1347년 10월 이미 한차례 출현 한 바 있고(『高麗史』 권37, 世家37 忠穆王 3年 10月 辛巳 “以平壤尹金用謙兼西北面都巡問使”), 당시 이미 민정에 간여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긴 하나(1月 壬申 “以同知密直司事全允臧爲交州道都巡問使, 令檢括雙城人口”), 이런 정황 역시도 ‘경상전라도순문사들이 합포(만호부)를 관장했던’ “14세기 전반”的 사례들을 앞서지는 못한다.

1371년 12월 (도)순문사가 안렴사와 함께 도내 권농에 나섰고,¹⁷⁷⁾ 동서 양계의 신부인호 안집, 양곡 및 전토급여, 생업보전도 맡았으며,¹⁷⁸⁾ 1378년 12월에는 호구 계점을 담당했다.¹⁷⁹⁾ 1383년 3월에는 도순문사가 안렴사와 함께 수령 출척에도 나섰는데,¹⁸⁰⁾ 안렴사와 함께 수령들의 권농(種桑·墾田) 성과를 평가한 후 그를 수령들의 “출척” 근거로 중앙에 보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외관화된 순문사’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게다가 1385년 4월에는 서북면과 요동지역 간의 교역(交易)까지 서북면 도순문사가 관장했고,¹⁸¹⁾ 1388년 6월에는 도순문사와 안렴사가 함께 역전(驛田) 복구에 나서거나 관내 토지변정에도 개입했으며,¹⁸²⁾ 급기야 도순문사가 안렴사와 함

177)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農桑 恭愍王 20年(1371) 12月 “教曰: ‘農桑衣食之本, 諸道巡問按廉考其守令種桑墾田多少, 具名申聞, 以憑黜陟.’”

178) 『高麗史』 권79, 志33 食貨2 戶口 恭愍王 20年(1371) 12月 “下教: ‘一東西兩界新附入戶理宜安集, 其令都巡問使給糧與田無令失業.’”

179) 『高麗史』 권133, 列傳46 祎王 4年(1378) 12月 丙午 “遣柳曼殊于東北面, 吳季南于全羅道, 安翊于楊廣道, 南佐時于江陵道, 王安德于西海道, 慶補于交州道, 計點戶口, 依西北例置左右翼軍, 惟慶尚道令都巡問使裴克廉掌之, 後憲府上疏罷之.”

180) 『高麗史』 권75, 志29 選舉 銓注 選用守令 [禎王] 9年(1383) 3月 “憲司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謹. 近年奸貪暴之徒, 付托權勢, 求爲守令, 恣行不法, 憑公營私, 塗炭生民, 州府郡縣, 日就彫弊, 願自今, 令臺省·六曹, 舉廉正寡欲, 純良勤儉者, 分遣郡縣, 使都巡問使·按廉使, 黜陟賢否, 以明賞罰, 如有謬舉, 罪及舉主, 黜陟不明, 憲司糾理’: 辛昌位之年(1388) 6月 “令都評議使司·臺省·六曹, 各舉所知, 務得公廉有才幹者, 以委外任, 仰都巡問按廉使, 嚴加考, 以憑黜陟, 其貪汚不材者, 痛行懲罰.”

181) 『高麗史』 권135, 列傳48 祎王 11年(1385) 4月 壬辰 (전략) 遼東遣人買農牛於是置點牛色聽西北面民互市得牛五百頭都巡問使烙印以送遼東以爲帶印牛乃公家所獻不與直故尋罷之 (후략)

182) 『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祎王 14年(1388) 6月 “教曰: ‘館驛之設所以傳命, 近因豪強兼并失其土田, 廕傳如舊以致凋弊誠可憫焉, 仰都巡問按廉使復其土田禁理枉道濫騎及過行隣驛者務加存恤毋致失所’: 7月, “大司憲趙浚等上書曰: ‘使命之任先王於巡問按廉之外不許發遣其慎重之意可見. (중략) 加之以巡問按廉之差使諸元帥之發遣亦皆乘驛橫行州郡馳騁館驛. (중략) 願自今州郡庶務一委巡問按廉以責其成雜冗使命不許 (중략) 使各道巡問按廉一法朝廷比制不敢違越違者痛理之’: 권78, 志32 食貨1 田制 祿科田 祎王 14年(1388) 6月 “教曰: ‘近來豪強兼并田法大壞, 其救弊之法仰都評議使司司憲府版圖司擬議申聞, 其料物庫屬三百六十莊處之田, 先代施納寺院者, 悉還其庫, 東北面西北面本無私田, 如有稱爲私田濫執者, 仰都巡問使痛行禁理, 其所執文契沒官.’”

께 한 도 내의 군사와 민사를 ‘양점(兩占)’하는 양축 중 하나로 정립했음이 확인된다.¹⁸³⁾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던 순문사들의 이러한 모습이 [만호들과의 결합을 거친 14세기 중엽 이후인] 14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본격화된 정황을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고려말의 원수와 순문사는 공히 만호들과의 결합 후 외관들과 결합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356년 이전의 원 만호부나 그 이후의 고려 만호부에 축적, 형성돼 있던 지역단위적 성격이 그 수장으로서의 만호직 자체에 투영돼 그와(만호직과) 결합한 군직들에도 전파된 결과라 생각된다. 이전에는 외관과의 관계가 제한적이었을 때였던 이를 군직들의 성격이 외관 친화적인 수위를 넘어 외관들과 직접적으로 결합하고, 급기야 외관의 전통적 역할에 해당하는 업무들에 개입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군직들의 이러한 방향으로의 성격변화가 군령관과 군정관의 ‘별도’ 운용을 무의미·무필요하게 만들므로써, 결국 양자의 ‘결합운용’을 가능케 한 정황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군직 상호간 통합 및 군직의 외정 간여폭 확대

(1) 군직들끼리의 통합

가) 원수와 순문사의 ‘통합’

군령관 및 군정관 등 ‘군직 간 상호결합’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의 원수-순문사 간 결합은, 137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출현했으며 1380년대 전반까지 계속되었다. 1374년 “3도 조전원수”가 [나머지 2도의] 도순문사직을 겸한 것을 시작으로,¹⁸⁴⁾ 이후 사례들은 대체로 단일 도(道)를 배경으로 등장한다. 각각의 설치 단위가 엇갈리거나,¹⁸⁵⁾ 원수의 설치단위가 도순문사의 파견단위보다 광역이거나

183)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禤王 14年(1388) 6月 “敎曰: ‘近年各道元帥都巡問按廉使州府大小軍民官營, 進私膳, 皆令禁斷, 違者罪之. 使命繁多害及於民, 今後都評議使軍事下都巡問使, 民事下按廉使雜泛使命, 不許差遣, 其公行廩給外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主客, 皆論其罪.’”

184) 『高麗史』 권44, 世家44 恭愍王 23年(1374) 7月 戊子 “(전략) 知門下事金庚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 往討之.”

185) 1377년 4월의 경우 ‘서경’ 도순문사가 ‘서북면’ 부원수와 결합했다(『高麗史』 권133, 列傳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더러 관찰되지만,¹⁸⁶⁾ 대체로 ‘하나의 도’를 배경으로, 도원수·상원수·원수·부원수와 도순문사가 결합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1375.2, 1375.8, 1376.3, 1376.6, 1376.7, 1376.9, 1379.3(2건), 1383.11, 1383.12].¹⁸⁷⁾ ‘지휘’와 ‘군정’ 기능이 실로 ‘도(道)’를 매개로 융합되고 있던 상황이라 하겠으며,¹⁸⁸⁾ 통합 운용을 통해 군령권과 군정권이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된다.

나) 지휘사와 병마사의 도태

한편 이런 상황에서 지휘사와 병마사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지휘사의 경우 원수·순문사와는 달리, 앞서 소개한 것처럼 일찍이 1290년대 이미 외관과 결합한 바 있다. 14세기 후반의 원수·순문사들이 보인 외관과의 결합양상을 이미 13세기 후반 보인 셈이다. 따라서 지휘사의 경우, 이후 원수와 순문사들이 보였던 ‘군직의 외관화’ 또는 ‘군직간 통합’ 추세를 선도했어야 할 존재로도 생각된다. 1350년대 후반에는 만호와도 한 차례 결합하기도 하였다.¹⁸⁹⁾

46 祚王 3年 4月, “以密直副使慶儀爲西京都巡問使兼西北面副元帥”).

186) 1379년 11월 및 1383년 2월의 경우 ‘경상도’ 원수가 ‘합포’ 도순문사와 결합한 반면, 1380년 1월에는 경상도의 ‘도순문사’가 ‘안동(목) 원수’와 결합하였다(『高麗史』 권134, 列傳47 祚王 5年 11月 “以慶尙道元帥禹仁烈爲合浦都巡問使”; 6年 正月 癸巳 “以安東元帥朴修敬爲慶尙道都巡問使”; 권135, 列傳48 祚王 9年 2月 己丑 “以柳曼殊爲慶尙道元帥兼合浦都巡問使羅世爲海道元帥.”

187) 『高麗史』 권133, 列傳46 辛禕1 祚王 元年(1375) 2月 “同知密直韓邦彥爲楊廣道副元帥兼都巡問使”; 8月 “密直副使羅世爲西海道上元帥兼都巡問使”; 2年(1376) 3月 “以朴普老爲西北面元帥兼都巡問使”; 6月 “以柳灝爲全羅道元帥兼都巡問使”; 7月 “柳灝爲全羅道元帥兼都巡問使”; 9月 “趙思敏爲全羅道副元帥兼都巡問使”; 권134, 列傳47 辛禕2 祚王 5年(1379) 3月 “以知門下事禹仁烈爲慶尙道上元帥, 密直副使睦子安爲全羅道副元帥並兼都巡問使”; 권135, 列傳48 辛禕3 祚王 9年(1383) 11월 “以全羅道都元帥池湧奇仍爲都巡問使”; 12월 “以慶尙道副元帥密直副使尹可觀仍爲都巡問使.” 1376년 7월에는 ‘도순문사 겸 원수’가 각도를 배경으로 공식화한 존재로 언급된다[『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祚王 2年(1376) 7月 “(전략) 令各道都巡問使兼元帥, 軍目道官員兼兵馬使 (후략)”. 한편 1384년 이후에는 이런 기사가 잘 등장하지 않는 점도 흥미롭다.

188) 오종록 또한 “순문사+원수”들이 도의 국방뿐만 아니라 군령, 군정까지 담당하게 되었을 것이라 보았다(앞의 책, 80면).

189) 김원봉이 홍두군·왜적방어 지휘[사] 직을 부만호 신분으로 수행했다[『高麗史』 권39,

그러나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여전히 지역별로 운영되긴 했으나, (원수·순문사의 경우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외관과의 결합 또는 연동사례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동료 군직과의 결합도 원수를 상대로 한 사례만이 제한적으로 확인된다. 1376년 9월 변안열이 양광전라도 도지휘사 겸 조전원수로 임명됐고, 1383년 12월 정지가 해도 도원수이자 양광전라 경상강릉도 도지휘처치사가 된 사례가 확인되는 정도이다.¹⁹⁰⁾

이후 지휘사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걸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4세기 후반 원수·순문사에 비해 과견·임명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1370년대 중반 이후 사실상 임명되지 않았다. 마지막 등장 시점도 1385년이었다. 다른 군직들에 비해(원수/1389·순문사/1388·병마사/1390) 훨씬 빨랐음이 흥미롭다.

지휘사의 이런 쇠락의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군직 간 통합의 대표사례인 원수와 순문사의 경우, 우선 만호와의 결합을 통해 외관적 성격을 키워 갔고, 그 결과 지역이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통합 운영되게 된 것이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 점을 감안하면 군직 간 통합의 추세에서 지휘사가 비껴나 있었던 것은 사실 의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휘사 역시 지역단위와의 연동성이 그 어느 군직 못지않았고, 무엇보다도 만호제와의 결합, 외관과의 결합이 여러 군직들 중 가장 먼저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휘사가 ‘도태’된 이유를 정확히 짐작하긴 어려우나, 원수와 (도)순문사가 각기 ‘다양한 지역단위의 군령관’ 및 ‘광역단위 군정관’으로 거듭나는 와중에 지휘사의 경우 그 처지가 애매해진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들어볼 만하다. 순문사

世家39 恭愍王 6年(1357) 11月 庚申 “(전략) 前戶部尙書金元鳳爲西北面紅頭軍倭賊防禦指揮兼副萬戶”. 한편 1293년 6월 이른바 ‘순마지휘(순군만호+지휘사)’가 등장하기도 해 주목된다(권30, 世家30 忠烈王 19年 6月 丙戌 “以內僚別將金呂爲巡馬指揮. 內僚兼巡馬始此”). 지휘사의 외관겸직이 빨랐던 것처럼, 만호(관련존재)와의 결합도 빨랐던 셈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다른 군직들에 비해 선행 전개되었던 것이 오히려 이후 지휘사의 침체가 앞당겨진 원인이었다면, 그 자체로 그 배경이 규명돼야 할 대목이라 할 것이다.

190) 『高麗史』 권133, 列傳46 禤王 2年(1376) 9月 “以邊安烈爲楊廣全羅道都指揮使兼助戰元帥”; 권135, 列傳48 禤王 9年(1383) 12月 甲戌, “鄭地爲海道都元帥 楊廣全羅慶尙江陵道都指揮處置使.”

처럼 ‘도별’로, 그리고 원수처럼 군소단위(“동·서강”)에도 파견됐던 지휘사들이 었던지라, 기초 및 광역단위 지역사회에서 스스로를 원수 및 순문사들과 차별화 할 여지를 구축하지 못한 결과 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정부가 원수에게 부여한 위상을 애초 지휘사에게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미상이지만, 원수와 순문사의 역할분담 구도가 확립되던 1370년대 중반이 지휘사의 실질적 소멸시점이었음을 결국 지휘사가 새 체제(“원수-순문사” 구도)에 흡수되고 말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4도 지휘사’ 등 (실질적 권능보다는) 추상적 권위만 가졌을 법한 존재로 형해화돼 간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하겠다.

반면 병마사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14세기 중엽 재등장한 병마사들은 계속 양계에만 임명되다가, 1361년 11월 처음으로 도별(경상·전라)로도 파견된다. 그런데 그냥 병마사로 파견된 것이 아니라 “도순문 겸 병마사”的 형태로 파견됐다.¹⁹¹⁾ 이후 1370년대에는 원수와도 모종의 관계를 맺게 된다. 1376년 7월 “각도에 ‘원수’, 각 군목도에는 병마사·지병마사”가 파견되는 양상이 관찰되며,¹⁹²⁾ 1380년대에 접어 들어서는(1382.10) 경상도 ‘조전원수 지병마사’에 임명된 심우로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원수와도 결합했다.¹⁹³⁾

고려초 이래 양계에 파견돼 온 병마사들은 원수·순문사와는 여러모로 차별되는 존재였다. 1350년대 이전에는 지역별 운영사례가 없었던 원수나 13세기에 새로 등장한 순문사들이 (적어도 14세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순수’ 군직이었던 것과 달리, 병마사들의 경우 ‘각도 안찰사’에 준하는 일종의 ‘준(準)-외관적’ 존재였기 때문이다. 반면 지휘사와는 일정하게 공유했던 바가 없지 않다. 지휘사의 경우 이미 고려전기부터 지역단위로 운영되는 모습을 노출했고, 원수가 활발히

191) 『高麗史』 권39,世家39 恭愍王 10年(1361) 11月 戊辰; 己巳.

192) 『高麗史』 권81, 志35 兵1 兵制 禮王 2年(1376) 7月 “(전략) 今後每當興師之際, 令各道都巡間使兼元帥, 軍目道官員兼兵馬使·知兵馬使, 與各道元帥, 各軍目道兵馬使知兵馬, 同帥各道 (후략)”

193) 『高麗史』 권134, 列傳47 禮王 8年(1382) 10月 “倭寇南原慶尙道, 助戰元帥知兵馬事沈于老斬倭三級.”

운영되지 않던 시절에도 활발하게 파견됐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문이었는지, 병마사 역시 지휘사처럼 그 존재감을 서서히 잊어갔다. 아울러 그러한 과정에 원수·순문사가 간접적으로 개입해 있었던 점도 흥미롭다. 병마사가 1360년대 초 양계 지역을 벗어나 처음으로 5도에 임명될 당시에도, 순수 병마사로서 그 파견지역을 확대해 간 것이 아니라 순문사와 결합된 상태에서 그리한 것이었음이 주목된다. 병마사가 5도에 새로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5도의 순문사들이 병마의 역할을 부여받은 셈이었다.

이는 결국 병마사들 또한 당시 지휘사들이 직면하고 있던 ‘위상의 애매성’ 문제에 맞닥뜨렸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37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도에는 원수, 군목도에는 병마사’가 배치되는 등의 역할분담이 가능했는데, 이후에는 그 마저 여의치 않아졌던 것이 아닌가 한다. 1360년대 전반 ‘중(中)-단위’ 병마사 [목(牧) 파견 병마사]들이 등장하면서, 도 단위로 설치됐던 이전 병마사들에 비해 지역현장과 더욱 빈도 높은 접촉,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하게 됐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변화가 (역시 위상을 다변화해 가고 있던) ‘원수’들과의 충돌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원수들이 지역의 위격 고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단위에 파견되던 추세가 본격화된 13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병마사들의 출현빈도가 급강하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 임무와 효용이 원수와 중첩되면서, 병마사 또한 지휘사처럼 쇠락해 간 것으로 생각된다. 1375년 목, 도호 및 지사들로 하여금 병마의 직을 담당케 한 것도¹⁹⁴⁾ 효과적 지역방어를 위한 외관과 군직 간 업무공조를 공식화한 조치이자, 역설적으로 독립적 병마사제 운용의 필요성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⁹⁵⁾

(2) 통일된 군제의 외정 간여폭 확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4세기 후반에는 원수와 순문사가 지역방어 및 군정관리의 양대축으로 부상하고, 지휘사와 병마사는 도태돼 갔다. 고려정부의 군

194)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大都護府 “辛禡元年牧都護知官皆帶兵馬之職。”

195) 1380년 한양윤으로서 한양도 도병마사가 된 유순이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高麗史』 권134, 列傳47 禤王 6年(1380) 4月 “(전략) 以柳均爲漢陽道都兵馬使兼漢陽尹”].

제운용도 종전의 ‘혼란상’에서 점차 정비돼 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군직 통합의 종착점이라 할 만한 조치가 마침내 1389년 단행된다. “도순문사를 도절제사(都節制使)로, 그리고 원수를 절제사(節制使)로” 삼아 원수와 순문사 제도를 한데 통합시킨 것이 그것이다.¹⁹⁶⁾

이 조치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당시 군직별로 개별적으로 키워오고 있던 ‘지역단위’ 또는 심지어 ‘외관’으로서의 성격을 절제사 제도에 공식적으로 반영시켰다는 점이다. 절제사들로 하여금 “경직 없이 (중략) 외정[州府之任]에 종사”하게 한 점에서 그를 엿볼 수 있다. 이 조치로 인해, 종전에는 그 역할이 군령과 군정일 뿐이었던 원수와 순문사들이 이제는 ‘절제사’라는 새로운 직함 아래 “주부(州府)의 임무” 즉 ‘외관’의 업무에 공식적으로 종사하게 된 것이다. 고려의 대표적인 군지휘관, 군정관들이 '[준]지방관'으로 변모했던 셈이다.

물론 신설 절제사들이 온전한 지방관이 되거나, 종래의 외관들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절제사 체제 출범 1년 전(1388) 전통 외관으로서의 안렴사들이 ‘도관찰출척사’로 정비된 후, 절제사 출범(1389)과 함께 [외관으로서의 고유한] 전문적 권한이 대폭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¹⁹⁷⁾ 아울러 그 직전인 1388년 6월에는 군사와 민사를 각기 도순문사와 안렴사가 분담하는 분리체제가 논의됐고,¹⁹⁸⁾ 대사헌 조준도 비슷한 견의를 한 바 있다.¹⁹⁹⁾ 따라서 군정과 민정(외정)의 근본적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하나, 절제사의 출범과 함께 ‘군직에 내재한 외관적 성격’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²⁰⁰⁾

196) 『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節制使 “恭讓王元年改都巡問使爲都節制使, 元帥爲節制使, 或帶州府之任。先是, 巡問元帥皆以京官口傳, 至是, 始用除授以專其任, 置經歷都事。” 1370년대 이래 여러 기충단위에도 임명되던 원수들을 하위로 편제하고, 광역단위로만 임명되던 도순문사들은 상위로 편제한 결과라 하겠다.

197) 『高麗史』 권137, 列傳50 祚王14年(1388) 8月 戊申 “改諸道按廉使爲都觀察黜陟使 (후략)”; 권77, 志31 百官2 外職 按廉使 “恭讓王元年始革京官口傳別用除授以專其任。”

198)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公式 職制 祚王 14年(1388) 6月 “敎曰: '(전략) 今後都評議使軍事下都巡問使, 民事下按廉使雜泛使命不許差遣 (후략)’”

199) 『高麗史』 권82, 志36 兵2 站驛 祚王 14年(1388) 7月 “大司憲趙浚等上書曰: '(전략) 使各道巡問按廉一法朝廷比制不敢違越違者痛理之.’”

200) 그것이 당시의 대세였음을 1390년대초의 경기지역의 ‘염문사(廉問使)’가 다시금 보여준다. 이 염문사는 ‘형명·전곡·군정 사무에 관리 전최 및 민간의 송사까지도 주관했던’

이렇듯 군정과 외정 간 경계가 변동하고, 군직 임명자의 민정 간여통로가 공식적으로 열린 상황은 분명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양상이다.²⁰¹⁾ 군령관 또는 군정관들이 더러 지역단위로 파견되곤 했을 뿐, 군직 담당자가 외관을 겸직하거나(14세기 후반) 군직의 공식 업무에 외정(민정) 일부가 제도적으로 포함된 사례는(14세기 말) 고려 전·중기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게다가 다음해인 1390년, 고려초 아래 그나마 다른 군직들에 비해 외관적 성격이 강했던 병마사마저 이 절제사체제에 결합되었다. 1390년 4월의 ‘병마절제사’가 그를 보여주는데,²⁰²⁾ 원수와 순문사의 결합에 병마사까지 더해짐으로써 ‘통합군제’로서의 절제사의 권위가 강화되었을 것임은 물론 [군직으로서의] 절제사의 ‘외관적 성격’도 더욱 강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동에 선행하고, 어찌 보면 그 단초를 열었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고려후기 도입된 외국 군제로서의) 만호부 제도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군직 담당자들이 만호직을 겸직한 후 외관겸직 또는 연동운영을 경험하게 되었고, 지역성이 강화된 원수와 순문사가 지역을 공통분모로 통합됐으며, 그 귀결로서의 통합군제인 절제사 임무에 외관업무가 공식 포함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겸했던 만호직은 고려정부가 제공한 것으로서 원제국에서 하사한 것은 아니었지만, 13세기 후반 아래 한세기 가까이 존속한 고려내 원 만호 및 만호부들의 운영방식과 대민관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기 어려웠을 것이며, 결국 1350년대 후반 설치된 ‘고려 만호부’들에도 어느 정도 반영됐으리라 짐작해 본다. 그렇게 볼 경우, 위와 같은 추세(개별 군직들의 외관화 및 외정 간여폭 확대, 통합 군직들의 외정 간여 공식화)에 힘입어 고려의 외정/군정간에 존재해 온 전통적 분절성이 약

것으로 전하고 있어, 실로 민정의 핵심과 군정의 핵심을 모두 아울렸던 막강한 외직이라 할 만하다[『高麗史』 권77, 志31 百官2 外職 廉問使 “恭讓王 3年(1391) 都評議使司獻議 ‘以京畿根本之地, 困於差役日就彫廢.’ 置左右道廉問使. 兩府謂之都廉問使, 奉翊通憲謂之廉問使, 四品以上謂之廉問副使. 其刑名錢穀軍情事務以至官吏殿最民間詞訟, 無不糾理”].

201) 앞서 살핀 것처럼 지휘사와 안무사의 결합이 극소수 사건될 때이다.

202)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2年(1390) 4月 壬寅 “(전략) 前原州等處兵馬節制使 (중략) 廣州等處兵馬節制使 (중략) 前忠州等處兵馬節制使 (중략) 前江陵等處兵馬節制使 (중략) 晉州等處兵馬節制使 (후략)”

화되며 급기야 두 분야가 융합될 여지가 조성됐던 당시의 큰 변화의 시작점에, 바로 ‘만호(부)’들이 있었던 것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4. 맷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려 전통군직들의 14세기 변천상과 ‘무관’하거나 그런 혼란상을 ‘초래’한 것으로 오해돼 온 외래제도로서의 만호[부]가, 실은 군직들의 성격변화(외관화)는 물론 그 운영방식(통합화) 및 업무확장(민정포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군직과 만호의 겹침 또는 연동운영의 결과 원수와 순문사 등의 외관적 성격이 강화됐고, 둘의 분리운영이 무의미해지면서 양자가 결합했으며, 지휘사와 병마사가 퇴조하자 (원수와 순문사를 골간으로) ‘외관업무를 부여받은 통합군제’로서의 절제사제도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고려후기 군제운영상의 이 커다란 변화에 외래제도로서의 만호가 촉매가 되었음은 자못 흥미로운 지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만호부의 개입 없이도 진행될 변화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래 만호부 제도가 이런 식의 군제운영 방식변화를 촉발한 궁극의 요소였다는 식의 과잉평가는 곤란하다. 다만 실제하는 역사적 변수로서의 만호제 출현, 그리고 고려후기 군제운영상의 중요 변화들이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보였다면, 양자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봐야 할 것이다. 고려 말 지방제도와 군사제도 간 관계의 변동을 촉발한 여러 잠재적 변수 중 하나로서의 “만호[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제어 : 군령관, 군정관, 외관, 만호, 만호-외관 결합, 군직-만호 결합, 군직-외관 결합

투고일(2016. 8. 29), 심사시작일(2016. 9. 2), 심사완료일(2016. 9. 12)

〈Abstract〉

Changes in the Goryeo Military System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 Caused by its own relationship with the Manho institution and the Goryeo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

Lee Kang Hahn *

In the 13th and 14th centuries, the Goryeo military system displayed some peculiar aspects. Weonsu and Jihwi-sa commanders, the Sunmun-sa administrators and Byeongma-sa officials were named and dispatched. The first two had been sporadically appointed since the early years of the Goryeo period and also surfaced sometimes in the 13th century. The Sunmun-sa figures first appeared in early 13th century and continued to be dispatched throughout the remainder of the dynasty. The Byeongma-sa figures were the ones that had been most utilized in Goryeo's first three hundred years, but their appearances started to decline in the late 13th century. In short, in the first and second halves of the 13th century, some of the military leaders were appointed rather frequently while others were dispatched not that much. Yet they shared one trend: They all suddenly vanished from official records in the first half of the 14th century.

Then, coming into the second half of the 14th century a rather interesting phenomenon started to form. After the year of 1356, all these four figures resumed their appearances in a rather explosive fashion. And most importantly, Weonsu, Jihwi-sa and Sunmun-sa entities started to appear ‘coupled’ with a unique counterpart: the Manho(-bu) figures which had been being installed by the Goryeo government since 1358.

These “Goryeo Manho(-bu)” figures inherited a rather specific “local” quality from their earlier incarnations, which had been installed in Goryeo in the late 13th and early 14th centuries by no other than the Mongol Yuan empire. It was a quality that resembled that of ordinary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As a result, these Goryeo

* Associate Profes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Manho(-bu) figures came to function as essentially semi-local administrative units. And through their linkage with their counterparts(Weonsu, Jihwi-sa, Sunmun-sa), the Goryeo Manho (-bu) units began to transmit such quality over to them.

Infused with such rather new qualities, the Goryeo military officials began to display functions that were usually demonstrated only by the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They were dispatched to serve local capacities, and showed increased interactions with local officials. Both military commanders and military administrators continued to operate that way, making it less and less necessary for them to be appointed separately (as one being named as either Weonsu or Sunmun-sa) as they had been. As a result, all these Goryeo military leaders, especially the commanders (Weonsu) and administrators (Sunmun-sa), started to merge with each other, as we can see from quite notable examples of them being ‘coupled’ and then assigned to a single official, who was expected to serve both duties at the same time.

Later, such coupling of military responsibilities was finally officialized through the launch of a brand new Jeolje-sa institution in 1389. What should be noted is the fact that all these new-style local military officials were officially granted with the jurisdiction to intervene and oversee ‘civilian’ administrative matters - which had been under the direct authority of the local officials only- as well. It effectively brought down the wall that traditionally existed between military business and civilian governing in Goryeo local communities. We can see that the Manho(-bu) institution, which was an adopted institution and not to mention quite foreign in nature, served as an unlikely and unexpected catalyst that triggered such important changes to proceed, within two major areas of Goryeo domestic governance: the military system and the local administrative structure.

Key Words : Goryeo military system, military commanders, military administrators, local officials, Manho entities, coupling between Manho entities and local officials, coupling between military leaders and Manho entities, coupling between military leaders and local officials